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Contents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5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도구	
1. 양적 연구	05
2. 질적 연구	07
III. 양적연구 분석결과	
1.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09
2.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18
3.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24
4.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경로 및 정치활동 실태	24
5.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	32
6.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34
7. 청소년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 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50
8.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분석	52
IV. 질적연구 분석결과	53
V. 시사점 및 제언	
1.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양적연구	54
2.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질적연구	55
3. 제언	58
VI. 토론문	
1. 충남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충청남도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62
2. 청소년의 정치 첫걸음에(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도의원)	64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역할 (충청남도교육청 김문광 장학사)	66
4. 청소년 정치 참여활성화 방안(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김재만 계장)	72
5. '충남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에 대한 토론(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도희 사무총장)	74
6.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려면(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윤주희 위원장)	77



##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활동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청소년활동 현황을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현장의 청소년활동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예비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 분석 및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파악에 근거한 청소년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활동 연구 조사 결과의 확산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및 관심 증대

## II. 연구 방법 및 연구도구

### 1. 양적연구

#### 1) 연구참여대상

- 이 연구를 위한 참여대상은 충청남도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2020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학교(23개교)와 고등학교 1~3학년 및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총 1,995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II-1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004	50.7
	여	978	49.3
학년	1학년	676	34.1
	2학년	677	34.1
	3학년	631	31.8
지역	1) 천안시	171	8.6
	2) 공주시	152	7.7
	3) 보령시	75	3.8
	4) 아산시	101	5.1
	5) 서산시	83	4.2
	6) 논산시	85	4.3
	7) 계룡시	93	4.7
	8) 당진시	98	5.0
	9) 금산군	126	6.4
	10) 부여군	160	8.1
	11) 서천군	155	7.8
	12) 청양군	146	7.4
	13) 홍성군	189	9.6
	14) 예산군	264	13.3
	15) 태안군	81	4.1

## 2) 연구도구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정치관심과 참여, 정치성향, 정치정보 수용 매체, 정치효능감, 그리고 응답자 기본정보 등과 같이 6개 영역으로 구성

〈표 II-2 연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구성〉

영역	하위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I.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1. 기관에 대한 신뢰	1-14	14
	2.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1) 중앙정부기관 2) 지방정부기관	1-4	4
	3.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	1-7	7
II. 정치관심과 참여	1. 관심 수준	1-10	10
	2. 선거관련 지식	1-3	3
	3. 개인 활동 참여	1-9	9
III. 정치성향	1. 정치성향의 유형	1	1
	2. 정치성향의 수준	1	1
IV. 정치정보 수용 매체	1. 매체 접촉 수준	1-12	12
	1-1. 매체 영향 순위	1	1
	2. 정치참여활동	1-17	17
	3. 정치참여 중요성 인식	1-17	17
V. 정치효능감	1. 내적 효능감	1-6	6
	2. 외적 효능감	7-12	6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별	1	1
	2. 학년	1	1
	3. 지역	1	1
	4. 학업성적수준	1	1
	5. 경제수준	1	1
	6. 부모님(보호자) 학력	1	1
	7. 부모님(보호자) 정치활동 및 성향 1) 정치내용의 언급 정도 2) 정당 및 단체활동 정도	4	4
합계			118

### 3) 자료조사 수집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조사를 위해 2020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 지역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15개 시군별 학교(23개교)와 고등학교 1~3학년 및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자기기입식설문조사를 실시(오프라인 집단 설문 또는 각 학교 우편 발송 후 회수)
-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995명이 설문에 응답
  - 배포표본 2,105부, 회수표본 2,030부, 유효표본 1,995부

### 4) 자료분석

-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적수준, 경제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부모님(보호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별)과 문항의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 t-test 및 ANOVA
-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

## 2. 질적연구

### 1) 연구참여대상

-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전략을 마련하는 목적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면담

〈표 II-3 F.G.I 대상자〉

영역	면담참여자	소속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경험	면담일자(시간)
학계 및 연구기관	A1	00연구원	청소년 참정권 관련 연구	2020.09.08. (42분)
현장전문가	A2	00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사회교과 교사	2020.08.14. (88분)
	A3	00청소년수련관	지역 정치참여 프로그램 운영	
	A4	00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참정권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및 교육청	A5	00교육지원청	청소년 참정권 및 민주시민교육	2020.08.14. (53분)
	A6	00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교육 및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A7	00 충남도당	청소년 인권 및 정치참여 관련 활동	2020.08.14. (68분)
	A8	00청소년의회		
	A9	청소년인권행동 0000		

## 2) 연구도구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

## 3) 자료조사 수집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은 8월 ~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사전에 연구에 대하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면담 시에 서면으로 면담동의서를 얻은 후, 인터뷰를 실시

## 4) 자료분석

- 녹음 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실시
- 연구의 목적과 질문의 영역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여 사례와 함께 해석을 하였으며, 면담 시에 연구자가 연구의 민감성을 위해 작성한 메모를 활용
- 가독성이 높도록 내용의 추상화에 따라 주제, 하위범주, 범주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와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고,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을 분석과 해석
-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 탐색 결과에 대한 엄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외부감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분석과 해석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동료 검수(peer debriefing) 실시



### III. 양적연구 분석결과

#### 1.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 1) 청소년의 국내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 공공기관(M=2.85, SD=.70), 학교(M=2.85, SD=.74), 군대(M=2.81, SD=.81)의 신뢰가 가장 높음
- 국회의원(M=2.11, SD=.83), 정당(M=2.27, SD=.80), 국회(M=2.30, SD=.82)의 신뢰가 가장 낮음

<표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93	2.56	0.54
1) 중앙 정부 부처(정부 조직)	1983	2.52	0.75
2) 지방 자치 정부(도청, 시청, 군청 등)	1980	2.65	0.72
3) 법원	1989	2.67	0.82
4) 경찰	1983	2.71	0.79
5) 군대	1987	2.81	0.81
6) 정당	1986	2.27	0.80
7) 국회	1985	2.30	0.82
8) 국회의원	1989	2.11	0.83
9) 공무원	1980	2.76	0.73
10) 공공기관(지역주민센터, 시청,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	1969	2.85	0.70
11)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1983	2.47	0.78
12) 소셜 미디어(예 : 트위터, 블로그, 카페, 카톡 등)	1984	2.32	0.82
13) 학교	1984	2.85	0.74
14) 일반대중(대다수의 사람)	1987	2.49	0.76



[그림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내 기관의 신뢰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내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3	2.56	0.54			
성별	남	1,002	2.54	.59	-.655		
	여	978	2.56	.48			
학년	1학년	675	2.64	.55	27.32**	1, 2>3	
	2학년	676	2.59	.51			
	3학년	631	2.43	.54			
학업성적수준	상	202	2.39	.64	8.50**	중하, 중, 하>중상>상	
	중상	435	2.50	.51			
	중	821	2.59	.51			
	중하	357	2.63	.53			
	하	152	2.58	.54			
경제수준	상	109	2.36	0.73	7.35**	중상, 중, 중하>상, 하	
	중상	390	2.58	0.53			
	중	1237	2.58	0.51			
	중하	171	2.55	0.47			
	하	52	2.30	0.69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45	0.61	5.66**	고졸>대학>대학원
		4년제 대학 졸	787	2.54	0.54		
		2년제 대학 졸	104	2.51	0.41		
		고등학교 졸	753	2.61	0.52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39	0.60	4.31**	대학, 고등>대학원
		4년제 대학 졸	770	2.56	0.55		
		2년제 대학 졸	125	2.59	0.50		
		고등학교 졸	797	2.57	0.52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32	0.67	5.76**	대학, 고등>대학원
		4년제 대학 졸	354	2.59	0.53		
		2년제 대학 졸	35	2.57	0.52		
		고등학교 졸	303	2.62	0.54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4	2.48	0.55	4.32**	가끔>매우자주, 자주, 전혀안함
		자주함	518	2.53	0.55		
		가끔함	950	2.60	0.52		
		전혀 안함	237	2.53	0.56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37	0.73	5.24**	가끔>매우 열심히, 상당히, 안함
		상당히 활동	90	2.56	0.64		
		가끔 활동	295	2.66	0.54		
		활동 안함	1534	2.54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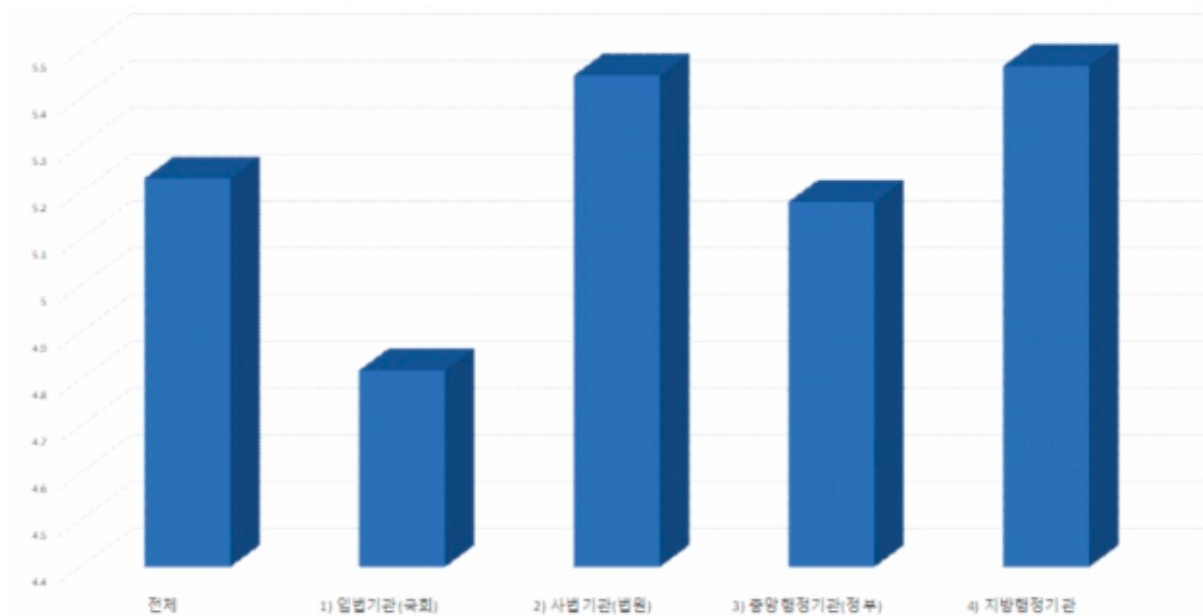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 전체 평균은 5.23/10.00(SD=2.08)
-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M=5.47, SD=2.17)로 가장 높음
  - 입법기관(국회)(M=4.82, SD=2.29)이 가장 낮음.

〈표Ⅳ-3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91	5.23	2.08
1) 입법기관(국회)	1991	4.82	2.29
2) 사법기관(법원)	1989	5.45	2.38
3) 중앙행정기관(정부)	1990	5.18	2.33
4)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1989	5.47	2.17



[그림Ⅳ-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1	5.23	2.08			
성별	남	1001	5.29	2.18	1.41		
	여	977	5.16	1.96			
학년	1학년	675	5.43	2.06	17.45**	1, 2>3	
	2학년	675	5.39	2.03			
	3학년	630	4.83	2.08			
학업성적수준	상	202	4.72	2.44	4.46**	중상, 중, 중하, 하>상	
	중상	435	5.19	2.07			
	중	819	5.39	1.99			
	중하	357	5.25	2.02			
	하	152	5.13	2.04			
경제수준	상	109	4.47	2.44	6.61**	중상, 중, 중하>상, 하	
	중상	389	5.43	2.19			
	중	1236	5.30	1.99			
	중하	171	5.07	1.87			
	하	52	4.54	2.52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4.94	2.31	1.49	-
		4년제 대학졸	786	5.25	2.16		
		2년제 대학졸	103	5.22	1.78		
		고등학교졸	753	5.31	2.00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4.66	2.37	3.77**	대학, 고등>대학원
		4년제 대학졸	769	5.30	2.16		
		2년제 대학졸	124	5.47	2.01		
		고등학교졸	797	5.23	1.98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4.61	2.58	2.35	-
		4년제 대학졸	353	5.33	2.11		
		2년제 대학졸	35	5.16	2.13		
		고등학교졸	303	5.30	2.05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4.98	2.12	4.14**	가끔>매우자주, 자주, 전혀 안함
		자주함	517	5.17	2.11		
		가끔함	950	5.39	2.05		
		전혀 안함	237	5.01	2.03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5.00	2.67	2.68*	가끔>매우 열심히
		상당히 활동	89	5.15	2.21		
		가끔 활동	295	5.54	2.09		
		활동 안함	1533	5.18	2.05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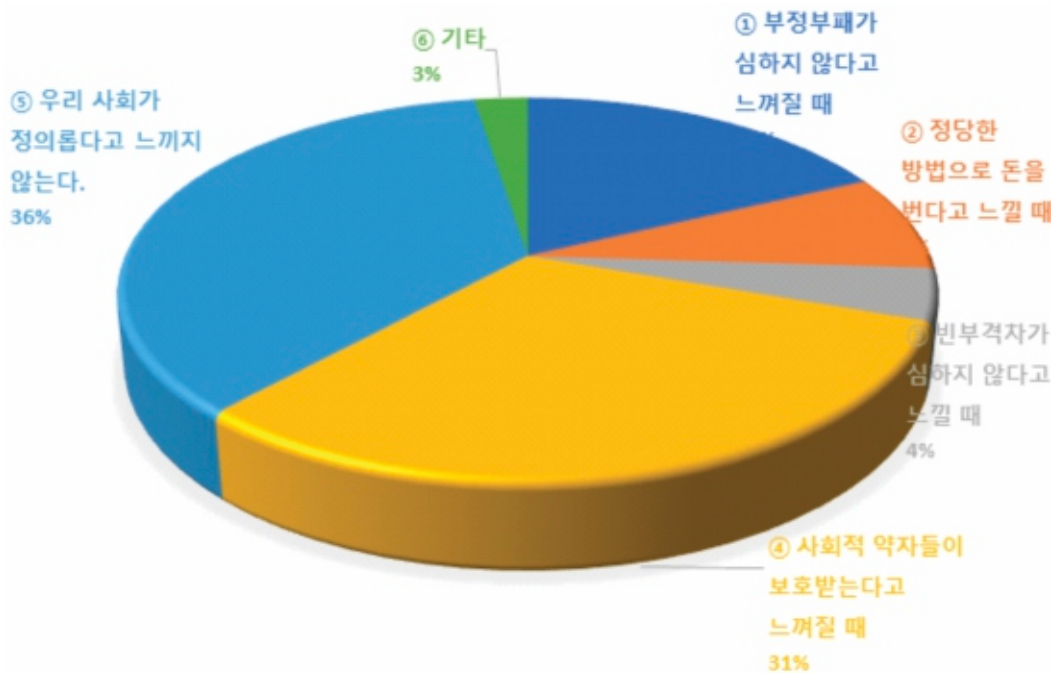
## 3)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현황

## (1)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가 35.7%(699명)로 가장 높음
  -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 가 31.4%(615명)
  -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가 4.4%(86명) 가장 낮게 나타남

〈표Ⅳ-5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구분	N	%
전체	1958	100
①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351	17.9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느낄 때	158	8.1
③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86	4.4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	615	31.4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699	35.7
⑥ 기타	4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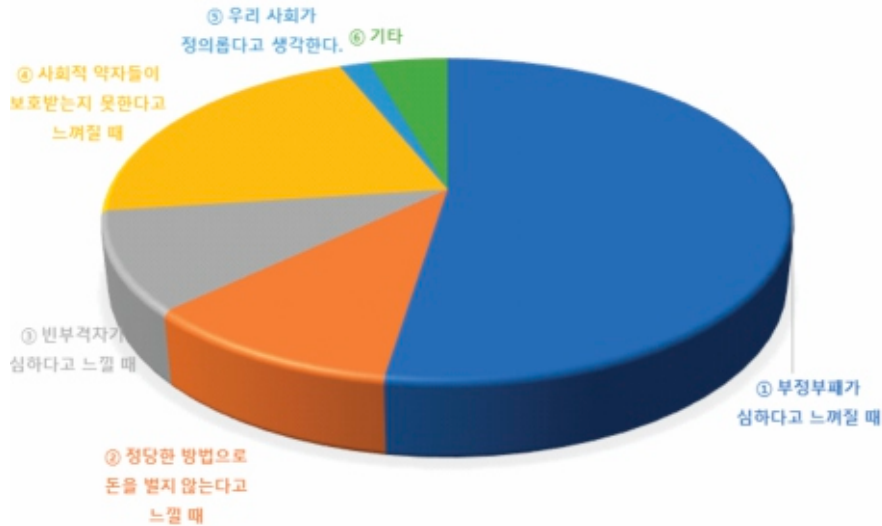
[그림Ⅳ-3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2)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52.4%(991명)로 가장 많음
  -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10.5%(199명)
  -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학생은 1.7%(32명)

<표Ⅳ-6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구분	전체	
	N	%
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991	52.4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	199	10.5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낄 때	188	9.9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397	21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32	1.7
⑥ 기타	8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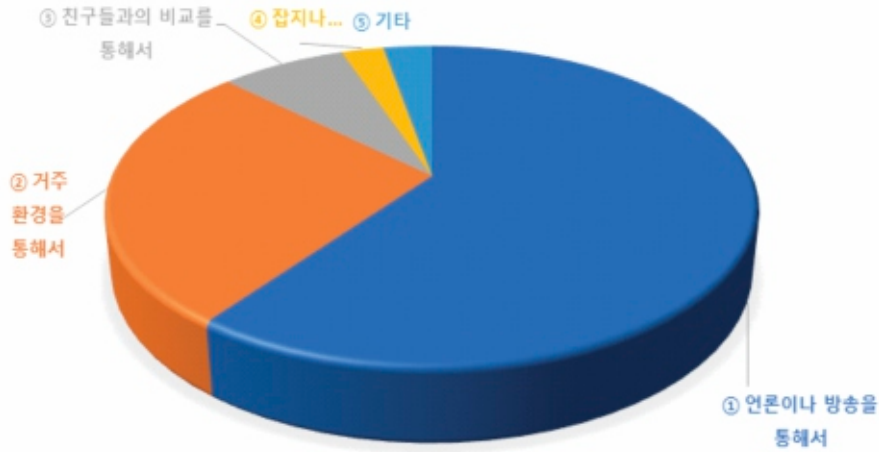
[그림Ⅳ-4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3)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의견

-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60.2%(927명)로 가장 높음

<표Ⅳ-7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구분	전체	
	N	%
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927	60.2
② 거주 환경을 통해서	414	26.9
③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116	7.5
④ 잡지나 책을 통해서	38	2.5
⑤ 기타	4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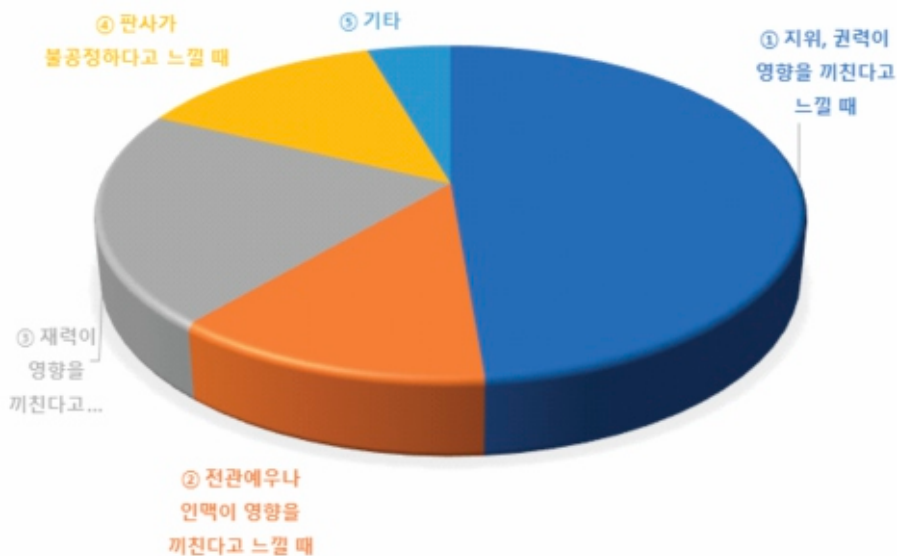
[그림 IV-5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4)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가 48.7%(867명)로 가장 높음

<표 IV-8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구분	N	%
①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867	48.7
②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224	12.6
③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373	20.9
④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237	13.3
⑤ 기타	81	4.5
전체	1,7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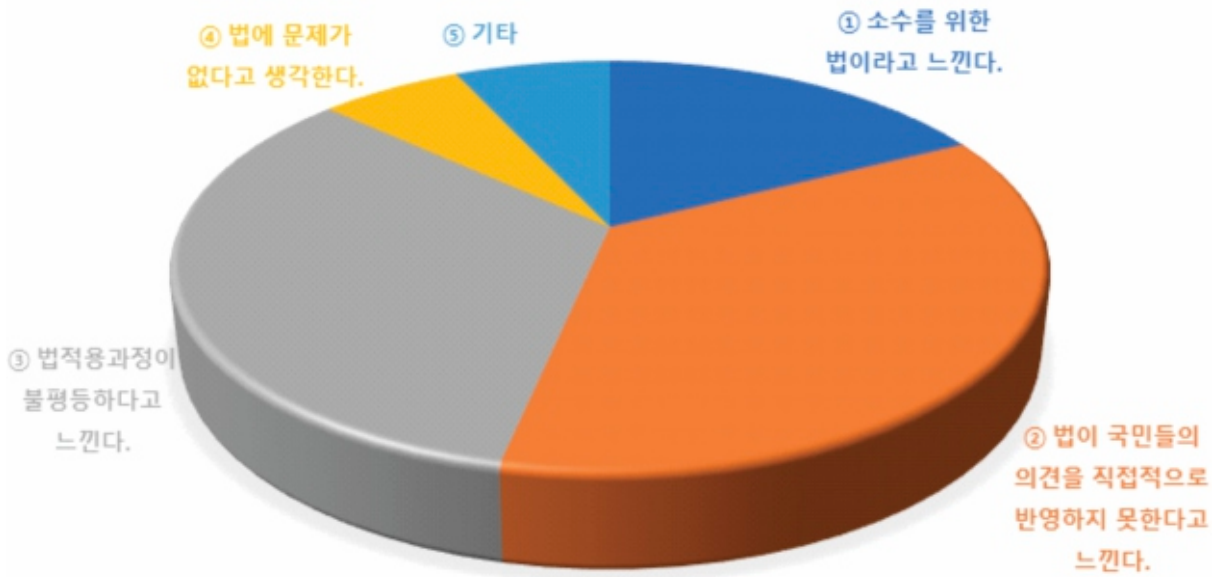
[그림 IV-6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5)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가 35.8%(690명)로 가장 높음

<표Ⅳ-9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구분	전체	
	N	%
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	338	17.5
②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690	35.8
③ 법 적용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644	33.4
④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22	6.3
⑤ 기타	133	6.9



[그림Ⅳ-7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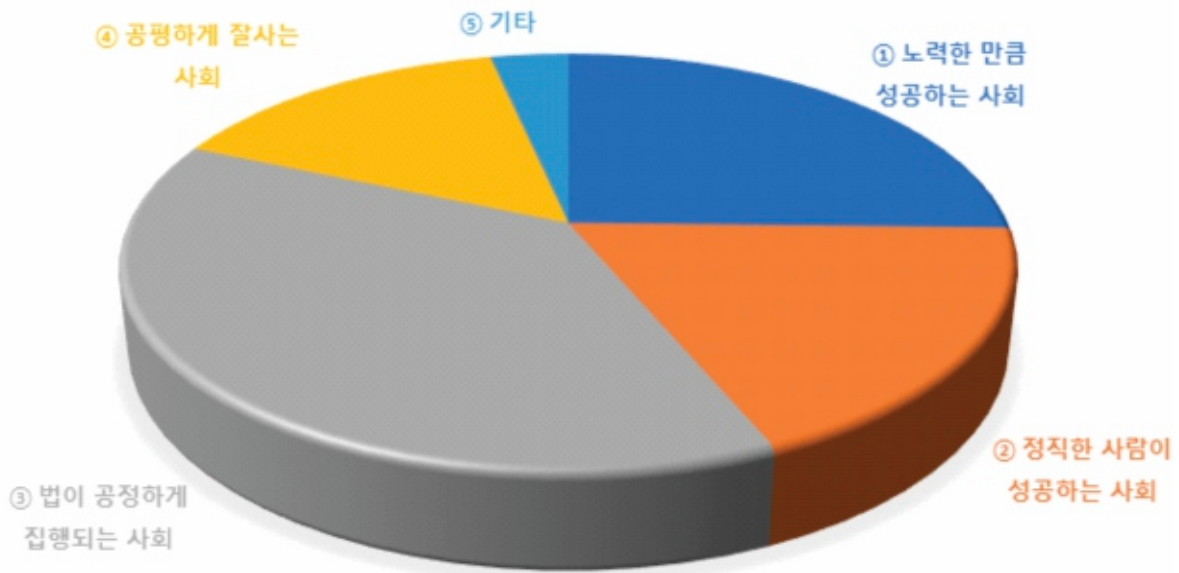


## (6)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37.9%(722명)
-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25.4%(483명)
-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18.3%(348명)
-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15.1%(287명)

〈표Ⅳ-10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N	%
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483	25.4
②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348	18.3
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722	37.9
④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	287	15.1
⑤ 기타	65	3.4



[그림Ⅳ-8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 2.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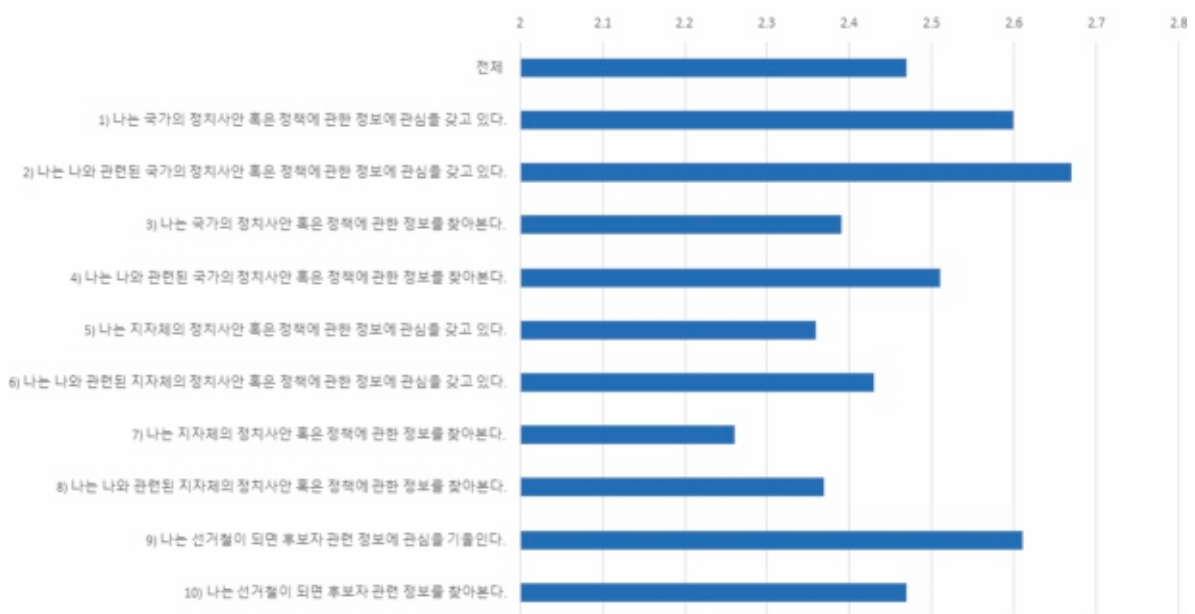
### 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 청소년들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전체 평균 2.47(SD=.66)

-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 2.67(SD=.78)로 가장 높음
-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가 2.26(SD=.76)로 가장 낮음

<표Ⅳ-1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9	2.47	0.66
1)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9	2.60	0.79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8	2.67	0.78
3)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6	2.39	0.78
4)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3	2.51	0.78
5)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6	2.36	0.77
6)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6	2.43	0.78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6	2.26	0.76
8)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1	2.37	0.77
9)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1987	2.61	0.86
10)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	1987	2.47	0.88



[그림Ⅳ-9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

<표Ⅳ-1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및 정책의 관심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9	2.47	0.66		
성별	남	1001	2.45	0.70	-1.13	
	여	977	2.49	0.61		
학년	1학년	676	2.45	0.66	.45	
	2학년	675	2.47	0.65		
	3학년	629	2.49	0.66		
학업성적수준	상	201	2.64	0.76	19.02** 상, 중상> 중>중하, 하	
	중상	437	2.62	0.62		
	중	818	2.45	0.63		
	중하	357	2.30	0.63		
	하	152	2.28	0.70		
경제수준	상	109	2.62	0.86	9.75**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389	2.61	0.67		
	중	1236	2.43	0.62		
	중하	171	2.33	0.60		
	하	52	2.35	0.80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62	0.75	4.65** 대학원> 대학>고졸
		4년제 대학졸	788	2.50	0.64	
		2년제 대학졸	102	2.48	0.63	
		고등학교졸	752	2.43	0.62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50	0.82	1.57 -
		4년제 대학졸	771	2.52	0.65	
		2년제 대학졸	124	2.47	0.53	
		고등학교졸	795	2.45	0.64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50	0.91	5.19** 4년대졸>고졸
		4년제 대학졸	354	2.57	0.65	
		2년제 대학졸	35	2.38	0.56	
		고등학교졸	303	2.36	0.66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85	0.70	69.95** 매우 자주> 자주>가끔>안함
		자주함	517	2.60	0.58	
		가끔함	949	2.39	0.61	
		전혀 안함	238	2.11	0.68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0	0.92	8.30**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 안함
		상당히 활동	89	2.62	0.72	
		가끔 활동	295	2.60	0.65	
		활동 안함	1533	2.43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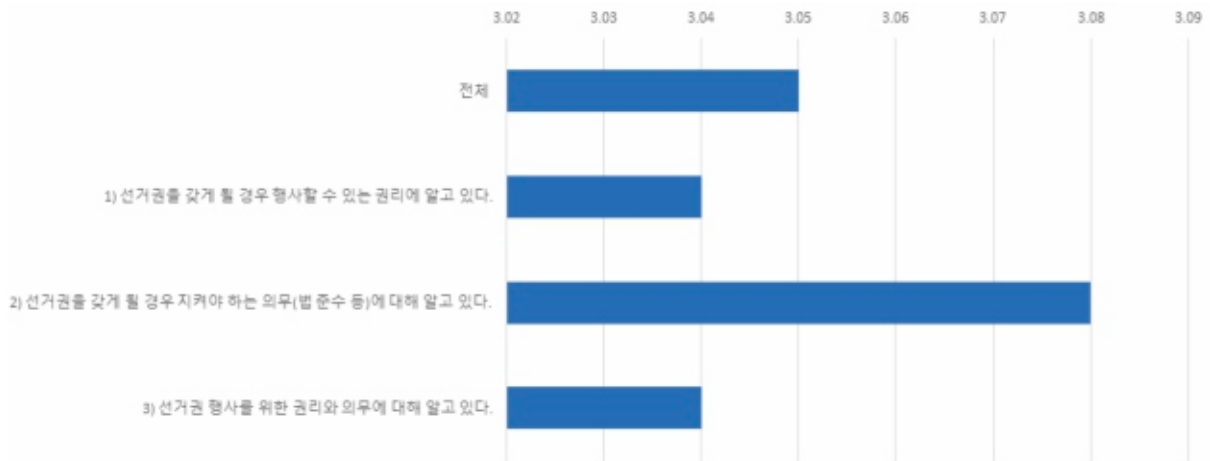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 청소년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 수준의 전체 평균: 3.05(SD=.69)

〈표Ⅳ-13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6	3.05	0.69
1)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알고 있다.	1984	3.04	0.73
2)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법 준수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985	3.08	0.74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	1983	3.04	0.75



[그림Ⅳ-10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거지식에 대한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1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6	3.05	0.69		
성별	남	999	3.04	0.71	-.09	
	여	976	3.07	0.66		
학년	1학년	675	3.02	0.68	1.367	
	2학년	673	3.08	0.70		
	3학년	629	3.07	0.69		
학업성적수준	상	200	3.16	0.76	21.05**	
	중상	437	3.22	0.65		
	중	817	3.07	0.65		
	중하	356	2.89	0.67		
	하	152	2.74	0.73		
경제수준	상	108	3.09	0.85	7.22**	
	중상	389	3.18	0.67		
	중	1234	3.04	0.65		
	중하	171	2.90	0.72		
	하	52	2.81	0.85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2	3.16	0.70	2.82*
		4년제 대학졸	787	3.10	0.67	
		2년제 대학졸	102	3.01	0.73	
		고등학교졸	752	3.02	0.68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6	3.05	0.73	1.41
		4년제 대학졸	771	3.11	0.67	
		2년제 대학졸	123	3.06	0.67	
		고등학교졸	794	3.04	0.69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0	3.12	0.77	4.99**
		4년제 대학졸	354	3.14	0.68	
		2년제 대학졸	35	3.03	0.76	
		고등학교졸	303	2.93	0.70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3.36	0.66	32.06**
		자주함	517	3.13	0.64	
		가끔함	947	3.00	0.66	
		전혀 안함	237	2.81	0.77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3.13	0.85	.87
		상당히 활동	89	3.05	0.78	
		가끔 활동	295	3.11	0.68	
		활동 안함	1530	3.04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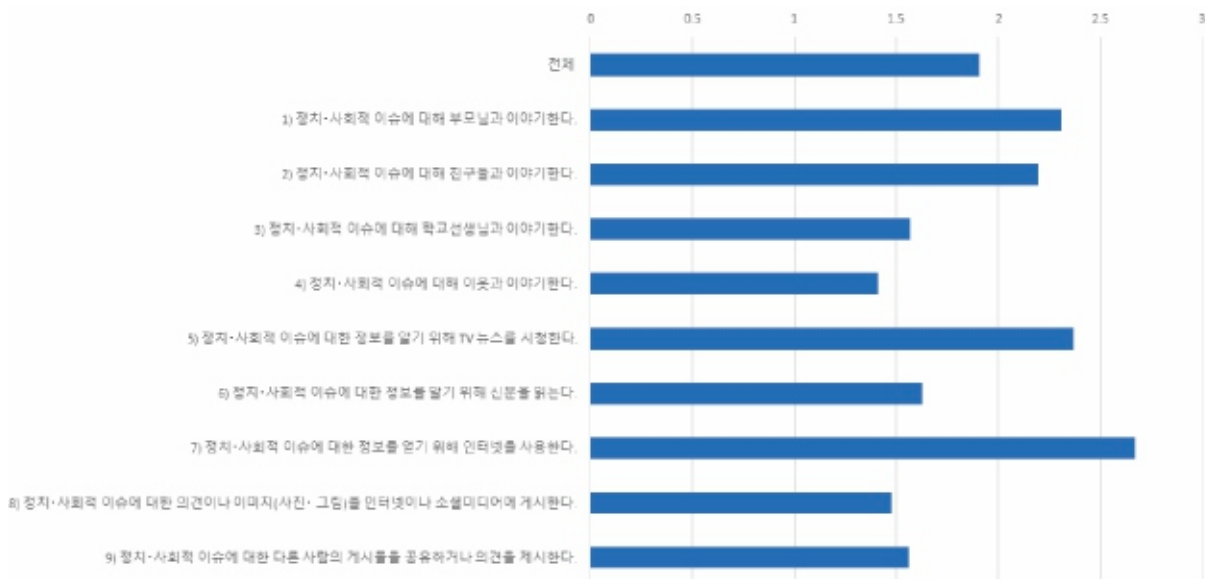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수준

-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준의 전체 평균은 1.91(SD=.59)
  -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가 2.67(SD=.94)로 가장 높음
  -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 가 1.41(SD=.73)로 가장 낮음

〈표Ⅳ-15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9	1.91	0.59
1)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988	2.31	0.90
2)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1987	2.20	0.87
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학교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988	1.57	0.74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	1987	1.41	0.73
5)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TV 뉴스를 시청한다.	1985	2.37	0.92
6)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1982	1.63	0.84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1986	2.67	0.94
8)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 그림)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1985	1.48	0.80
9)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1986	1.56	0.83



[그림Ⅳ-11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1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9	1.91	0.59		
성별	남	1002	1.91	0.62	- .20	
	여	976	1.92	0.56		
학년	1학년	676	1.90	0.62	1.80 -	
	2학년	675	1.95	0.59		
	3학년	629	1.89	0.57		
학업성적수준	상	202	2.14	0.72	19.76** 상> 중상>중>중하, 하	
	중상	437	2.02	0.60		
	중	818	1.88	0.54		
	중하	356	1.77	0.53		
	하	152	1.77	0.65		
경제수준	상	109	2.18	0.81	19.63** 상, 중상, > 중, 중하, 하	
	중상	389	2.08	0.60		
	중	1236	1.85	0.53		
	중하	171	1.83	0.58		
	하	52	1.82	0.78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09	0.71	6.17** 대학원> 4년 대학, 2년대학, 고졸
		4년제 대학졸	787	1.93	0.58	
		2년제 대학졸	103	1.87	0.54	
		고등학교졸	752	1.88	0.57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00	0.75	2.08 -
		4년제 대학졸	771	1.95	0.59	
		2년제 대학졸	124	1.88	0.58	
		고등학교졸	795	1.90	0.57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08	0.84	6.99* 대학원, 4년대졸>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354	2.00	0.59	
		2년제 대학졸	35	1.73	0.53	
		고등학교졸	303	1.83	0.58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39	0.67	136.27** 매우 자주>자주>가끔 >안함
		자주함	517	2.06	0.57	
		가끔함	949	1.81	0.51	
		전혀 안함	238	1.51	0.45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28	0.88	17.71** 매우열심> 상당히,가끔 >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9	2.17	0.66	
		가끔 활동	295	2.03	0.63	
		활동 안함	1533	1.87	0.56	

\*:  $p < .05$ , \*\*:  $p < .01$

### 3.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 1)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

- 현재 상태의 유지와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 유형이 58.1%(1,154명)
- 변화하고자 하는 진보 유형이 32.8%(652명)
- 지키고자 하는 보수 성향이 9.1%(1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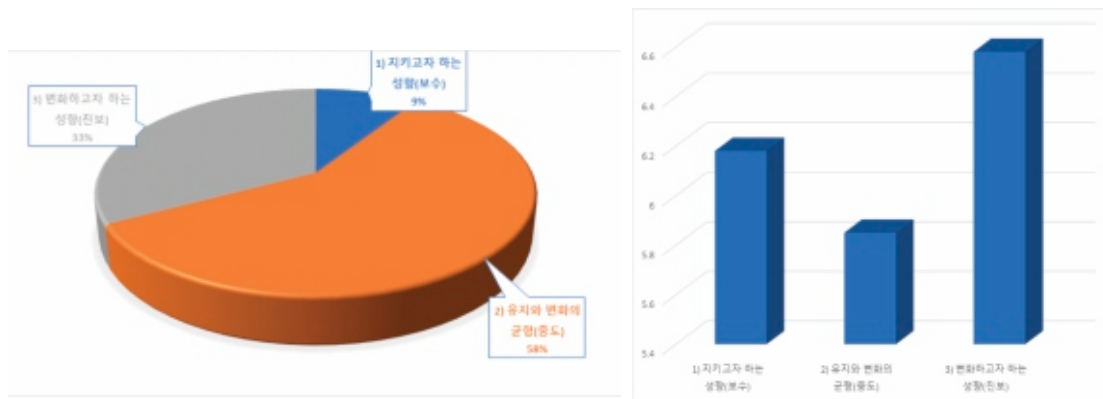
#### 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

- 진보 M=6.58로 가장 높음, 보수 M=6.18로 중간, 중도 M=5.85로 가장 낮음

<표Ⅳ-17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 및 수준>

정치 성향	유형		수준			
	N	%	M	SD	F	사후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6.18	2.21	33.48**	진보>중도>보수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5.85	1.70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6.58	1.90		

\*\* :  $p < .01$



[그림Ⅳ-1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좌) 및 수준(우)]

### 4.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경로 및 정치활동 실태

#### 1)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유형 및 영향 인식

- 충청남도 청소년이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 1위: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가 3.03(SD=.77)
  - 2위: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가 2.94(SD=.78)
  - 3위: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와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가 2.93(SD=.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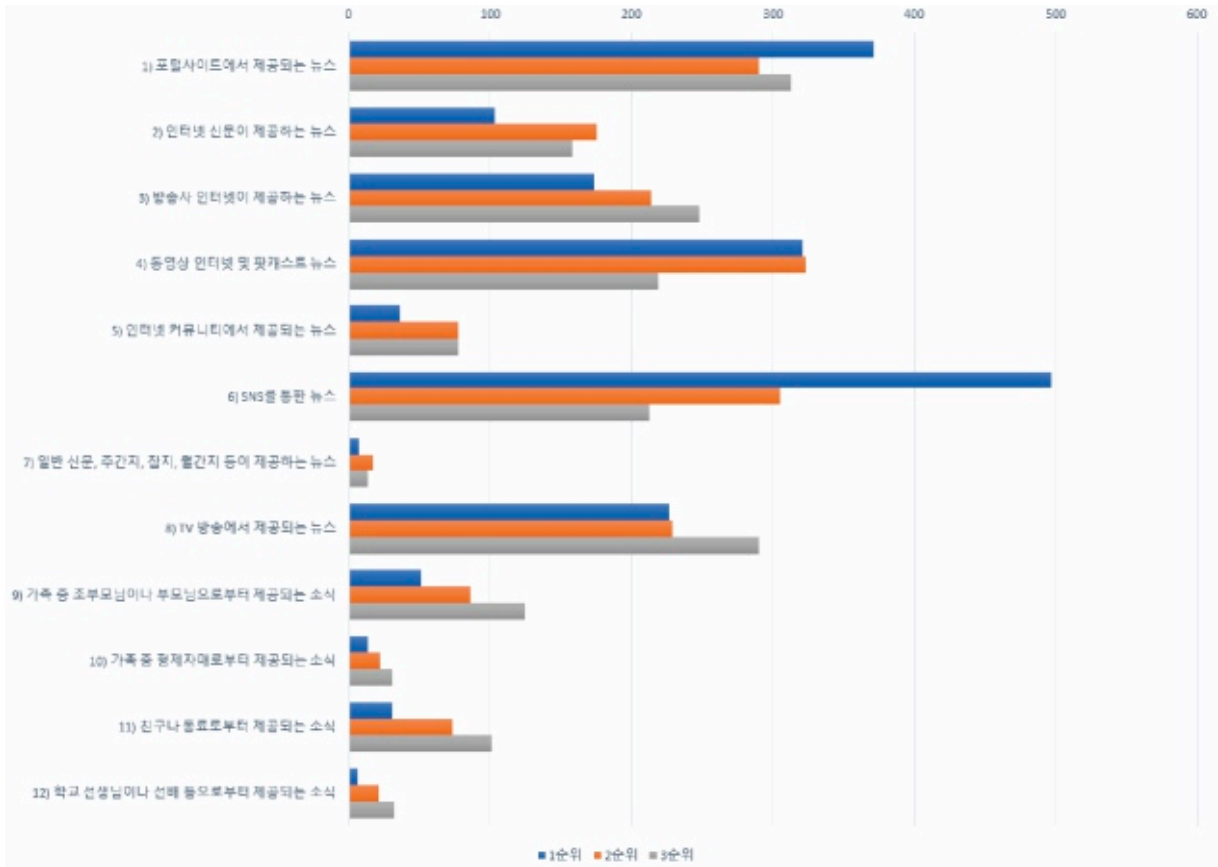
-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를 통해 자신이 영향을 받는 순위
- 1위: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가 497명
  - 2위: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가 323명
  - 3위: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가 313명

〈표Ⅳ-18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및 영향인식 수준〉

구분	평균 및 표준편차			영향 인식 순위		
	N	M	SD	1	2	3
전체	1990	2.60	0.52	1837	1832	1819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9	3.03	0.77	371	290	313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6	2.58	0.86	103	175	158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5	2.94	0.78	174	214	248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1988	2.93	0.87	321	323	219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5	2.42	0.89	36	77	77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1989	2.93	0.92	497	305	21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5	2.02	0.82	7	17	13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2	2.88	0.83	227	229	290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6	2.65	0.85	51	86	125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6	2.19	0.90	13	22	31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9	2.50	0.85	31	73	101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8	2.14	0.87	6	21	32



[그림Ⅳ-13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그림Ⅳ-14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영향 인식 순위]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19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접촉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0	2.60	0.52			
성별	남	1003	2.52	0.55	-7.16**	여>남	
	여	976	2.69	0.48			
학년	1학년	675	2.61	0.53	2.10	-	
	2학년	675	2.63	0.53			
	3학년	631	2.57	0.51			
학업성적수준	상	202	2.64	0.65	3.84**	상, 중상, 중>중하, 하	
	중상	436	2.66	0.48			
	중	819	2.61	0.49			
	중하	357	2.55	0.52			
	하	152	2.49	0.62			
경제수준	상	109	2.62	0.74	8.99**	상, 중상, > 중, 중하>하	
	중상	390	2.71	0.48			
	중	1236	2.58	0.49			
	중하	171	2.54	0.57			
	하	52	2.33	0.73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2	2.58	0.63	.02	-
		4년제 대학졸	788	2.61	0.51		
		2년제 대학졸	104	2.61	0.45		
		고등학교졸	752	2.61	0.51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6	2.51	0.73	1.69	-
		4년제 대학졸	771	2.62	0.51		
		2년제 대학졸	125	2.63	0.48		
		고등학교졸	796	2.62	0.50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50	0.74	3.40*	4년대졸>대학원
		4년제 대학졸	354	2.67	0.50		
		2년제 대학졸	35	2.57	0.42		
		고등학교졸	303	2.56	0.56		
부모님 (보호자)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4	2.89	0.55	94.04**	매우 자주>자주>가끔>안함
		자주함	516	2.73	0.45		
		가끔함	950	2.55	0.47		
		전혀 안함	238	2.22	0.59		
정치 참여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3	0.73	11.77**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9	2.83	0.55		
		가끔 활동	294	2.70	0.54		
		활동 안함	1535	2.57	0.51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 정치활동 참여 실태: 전체 참여 수준은 1.53(SD=.50)
-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사글 읽기' 가 2.11(SD=1.03)로 가장 참여가 높음
- '1) 청소년 정당 단체' 가 1.25(SD=.58)로 가장 참여가 낮음

〈표IV-20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구분	N	M	SD
전체	1976	1.53	0.50
1) 청소년 정당 단체	1973	1.25	0.58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1972	1.30	0.61
3) 인권운동단체	1971	1.26	0.59
4) 자원봉사단체	1972	1.68	0.85
5) 기부단체	1967	1.46	0.73
6) 청소년 캠페인 활동	1968	1.57	0.79
7) 동물 권리 및 복지 단체	1971	1.31	0.64
8) 종교단체	1969	1.49	0.89
9)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예 : 보이/걸 스카우트, YMCA)	1967	1.32	0.67
10)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음악, 미술, 스포츠 팀 등)	1961	1.54	0.86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사글 읽기	1970	2.11	1.03
12) 정치적 이슈에 대한 느낌 표시하기(좋아요, 싫어요)	1973	1.77	0.97
13)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댓글 달기	1972	1.44	0.77
14)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사글 공유하기	1965	1.44	0.78
15)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이나 서명 참여하기	1972	2.06	1.07
16)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집회, 시위 참여	1970	1.34	0.67
17)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 토론, 설득하기	1973	1.74	0.93



[그림 IV-15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IV-2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참여 실태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6	1.53	0.50			
성별	남	996	1.51	0.53	-2.65	여>남	
	여	970	1.56	0.47			
학년	1학년	670	1.53	0.54	5.80	2>3	
	2학년	672	1.58	0.50			
	3학년	626	1.49	0.45			
학업성적수준	상	200	1.71	0.64	10.83**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434	1.60	0.48			
	중	816	1.50	0.46			
	중하	355	1.48	0.47			
	하	149	1.46	0.53			
경제수준	상	109	1.75	0.69	15.97**	상, 중상, > 중, 중하, 하	
	중상	388	1.66	0.53			
	중	1226	1.48	0.44			
	중하	170	1.50	0.53			
	하	52	1.46	0.55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9	1.64	0.60	3.86**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87	1.56	0.51		
		2년제 대학졸	104	1.49	0.44		
		고등학교졸	747	1.51	0.47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5	1.68	0.66	4.84**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65	1.56	0.50		
		2년제 대학졸	124	1.56	0.53		
		고등학교졸	794	1.50	0.46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69	1.68	0.73	6.77**	대학원, 4년대졸>2년대 졸, 고졸
		4년제 대학졸	352	1.59	0.49		
		2년제 대학졸	35	1.43	0.46		
		고등학교졸	301	1.45	0.45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2	1.80	0.54	61.60**	매우 자주>자주>가 끔>안함
		자주함	516	1.64	0.53		
		가끔함	941	1.46	0.44		
		전혀 안함	237	1.29	0.39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1	1.97	0.75	44.05**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8	1.87	0.64		
		가끔 활동	293	1.71	0.53		
		활동 안함	1526	1.47	0.45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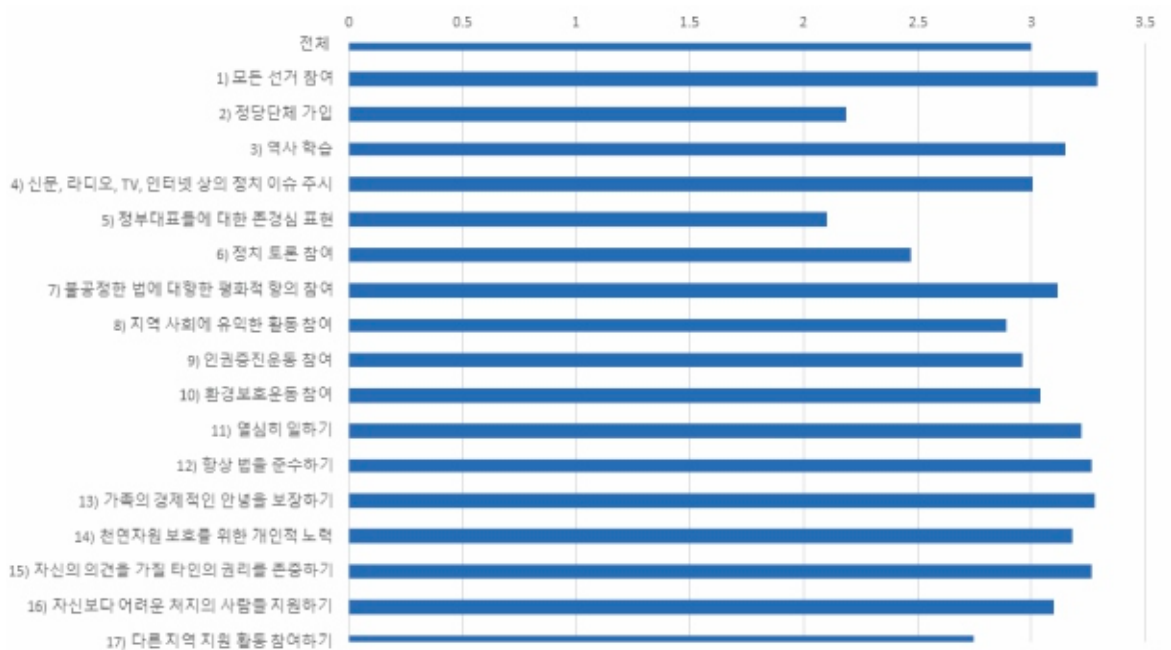
###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전체 인식 수준은 3.00(SD=2.23)

- ‘1) 모든 선거 참여’ 가 3.29(SD=.78)로 중요성이 가장 높음
-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가 2.10(SD=2.34)로 가장 낮음

〈표Ⅳ-22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구분	N	M	SD
전체	1977	3.00	2.23
1) 모든 선거 참여	1975	3.29	0.78
2) 정당단체 가입	1971	2.19	0.75
3) 역사 학습	1971	3.15	0.83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	1971	3.01	0.79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1973	2.10	2.34
6) 정치 토론 참여	1967	2.47	0.86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1972	3.12	0.86
8)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1968	2.89	0.81
9) 인권증진운동 참여	1973	2.96	0.84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1973	3.04	0.83
11) 열심히 일하기	1972	3.22	0.78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1971	3.27	0.77
13)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1971	3.28	0.76
14)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1972	3.18	0.78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1972	3.27	0.76
16)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1972	3.10	0.78
17) 다른 지역 지원 활동 참여하기	1973	2.75	0.86



[그림Ⅳ-1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중요성 실태]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중요성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2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중요성 실태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7	3.00	2.23			
성별	남	995	2.88	0.62	-6.37**	여>남	
	여	971	3.04	0.50			
학년	1학년	669	2.97	0.58	5.80**	1, 2>3	
	2학년	672	2.99	0.56			
	3학년	627	2.91	0.57			
학업성적수준	상	199	3.00	0.70	13.18**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434	3.05	0.46			
	중	816	2.98	0.52			
	중하	356	2.88	0.59			
	하	149	2.70	0.75			
경제수준	상	109	2.87	0.83	6.33**	중상 > 상, 중, 중하> 하	
	중상	388	3.04	0.56			
	중	1227	2.95	0.52			
	중하	170	2.92	0.60			
	하	51	2.67	0.83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8	2.97	0.73	2.12	-
		4년제 대학졸	787	2.99	0.52		
		2년제 대학졸	104	2.86	0.51		
		고등학교졸	747	2.94	0.59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4	2.93	0.77	.05	-
		4년제 대학졸	765	2.98	0.56		
		2년제 대학졸	124	2.92	0.49		
		고등학교졸	795	2.95	0.57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115	2.65	0.57	3.84**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65	2.67	0.50		
		2년제 대학졸	124	2.59	0.54		
		고등학교졸	794	2.63	0.50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3.19	0.50	30.94**	매우 자주>자주>가끔 >안함
		자주함	516	3.01	0.53		
		가끔함	941	2.92	0.54		
		전혀 안함	236	2.74	0.71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1	3.15	0.64	3.34*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 안함
		상당히 활동	88	3.02	0.62		
		가끔 활동	293	3.02	0.57		
		활동 안함	1526	2.94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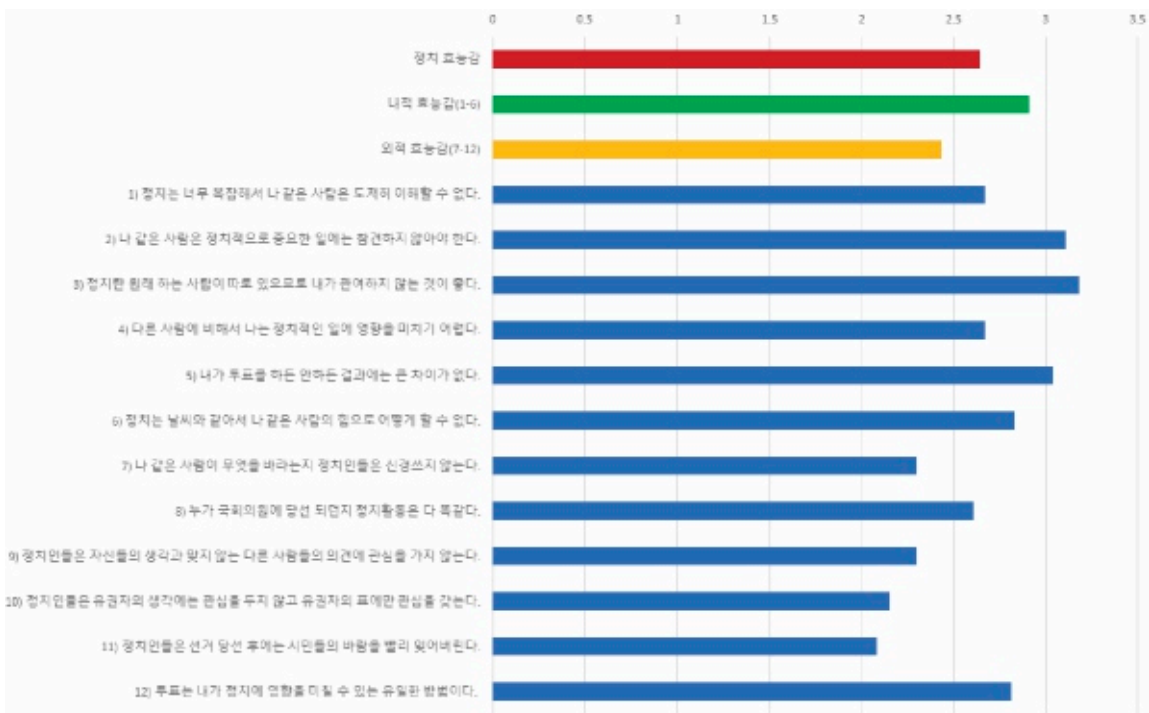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5.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전체 평균은 2.64(SD=.51)
- 내적 효능감은 2.91(SD=.65), 외적 효능감은 2.43(SD=.56)

〈표Ⅳ-24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구분	N	M	SD
정치 효능감	1975	2.64	0.51
내적 효능감(1-6)	1975	2.91	0.65
외적 효능감(7-12)	1974	2.43	0.56
1)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975	2.67	0.80
2) 나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1973	3.11	0.77
3)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73	3.18	0.77
4)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971	2.67	0.89
5)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1971	3.04	0.87
6)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1974	2.83	0.91
7)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1972	2.30	0.95
8)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든지 정치활동은 다 똑같다.	1972	2.61	0.96
9)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1972	2.30	0.89
10)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1974	2.15	0.89
11)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	1974	2.08	0.86
12) 투표는 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973	2.81	0.95



[그림Ⅳ-17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 ○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효능감에 대한 차이 분석

〈표Ⅳ-25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효능감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5	2.64	0.51			
성별	남	996	2.62	0.52	-2.65**	여>남	
	여	970	2.68	0.50			
학년	1학년	670	2.69	0.50	4.99**	1, 2>3	
	2학년	671	2.64	0.50			
	3학년	627	2.60	0.53			
학업성적수준	상	200	2.72	0.54	7.69**	상, 중상, 중 > 중하 > 하	
	중상	434	2.70	0.48			
	중	816	2.65	0.49			
	중하	355	2.59	0.54			
	하	149	2.47	0.55			
경제수준	상	109	2.64	0.63	3.39**	상, 중상, 중 > 중하, 하	
	중상	387	2.70	0.53			
	중	1227	2.64	0.48			
	중하	170	2.57	0.54			
	하	52	2.49	0.60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8	2.69	0.56	1.05	-
		4년제 대학졸	787	2.66	0.50		
		2년제 대학졸	104	2.61	0.49		
		고등학교졸	747	2.63	0.51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5	2.65	0.57	1.12	-
		4년제 대학졸	765	2.67	0.50		
		2년제 대학졸	124	2.59	0.54		
		고등학교졸	794	2.63	0.50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69	2.64	0.58	1.99	-
		4년제 대학졸	352	2.68	0.51		
		2년제 대학졸	35	2.51	0.55		
		고등학교졸	301	2.60	0.52		
부모님 (보호자) 정치 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79	0.55	11.75**	매우 자주>자주>가끔 , 안함
		자주함	515	2.69	0.51		
		가끔함	941	2.61	0.48		
		전혀 안함	237	2.57	0.51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8	0.62	3.21*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8	2.68	0.50		
		가끔 활동	293	2.72	0.51		
		활동 안함	1525	2.63	0.50		

\*:  $p < .05$ , \*\*:  $p < .01$

## 6.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 1) 충청남도 지역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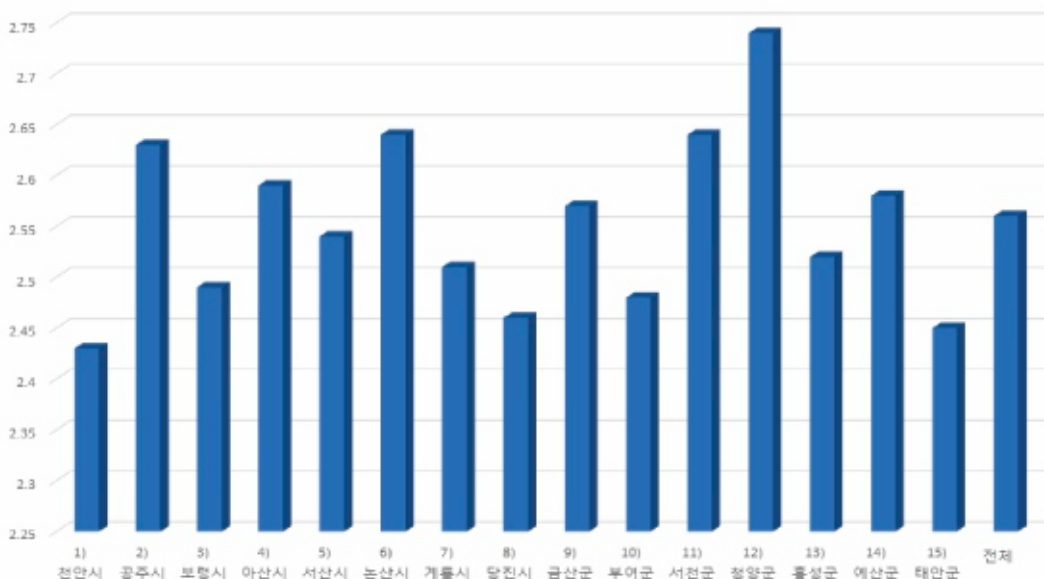
#### (1)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 국가신뢰에 대한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3.5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청양군(M=2.74, SD=.54), 서천군(M=2.64, SD=.46), 논산시(M=2.64, SD=.49), 그리고 공주시(M=2.63, SD=.56) 등이 높음
  - 천안시(M=2.43, SD=.58), 태안군(M=2.45, SD=.54), 그리고 당진시(M=2.46, SD=.46) 등이 낮음

〈표Ⅳ-26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1	2.43	0.58	3.51** 12, 6, 11, 2 > 4, 5 > 1, 3, 8, 15
2) 공주시	152	2.63	0.56	
3) 보령시	75	2.49	0.64	
4) 아산시	101	2.59	0.51	
5) 서산시	83	2.54	0.45	
6) 논산시	85	2.64	0.49	
7) 계룡시	92	2.51	0.59	
8) 당진시	97	2.46	0.46	
9) 금산군	126	2.57	0.53	
10) 부여군	160	2.48	0.61	
11) 서천군	155	2.64	0.46	
12) 청양군	146	2.74	0.54	
13) 홍성군	189	2.52	0.48	
14) 예산군	264	2.58	0.53	
15) 태안군	81	2.45	0.50	
전체	1977	2.56	0.54	

\*:  $p<.05$ , \*\*:  $p<.01$



[그림Ⅳ-18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2)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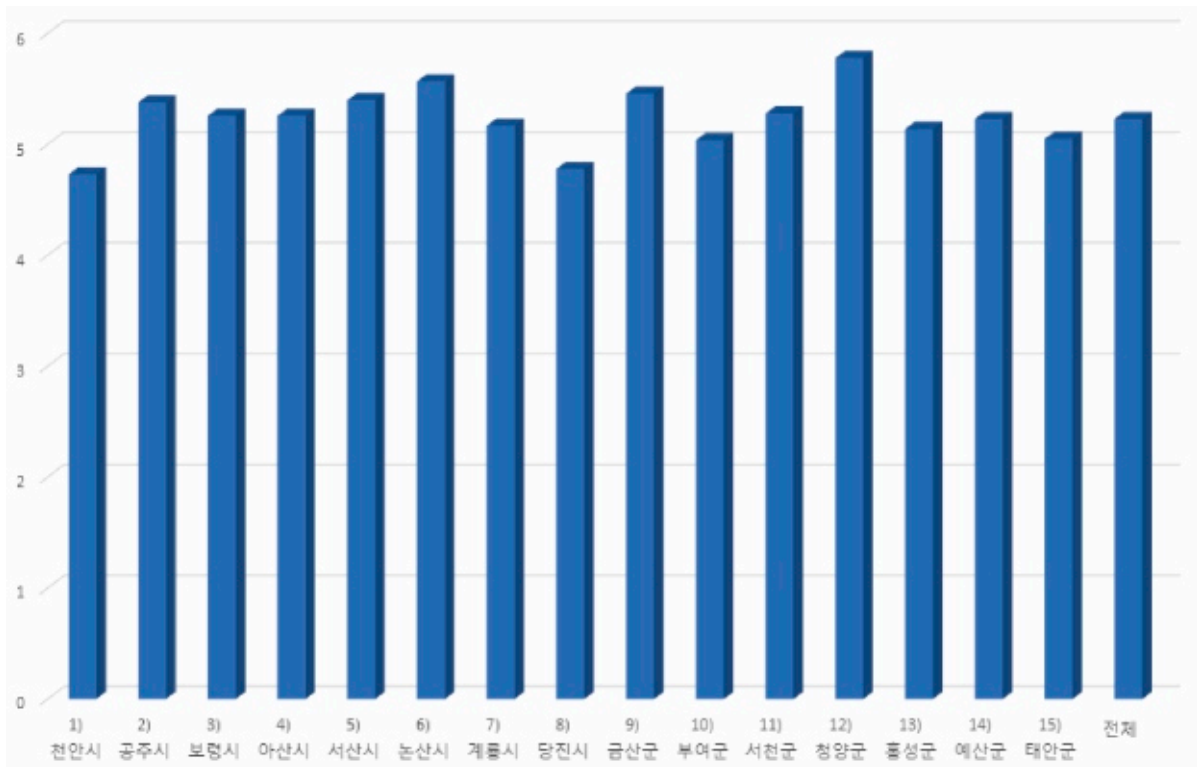
○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3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청양군(M=5.78, SD=1.91)과 논산시(M=5.57, SD=1.87) 등이 높음
- 천안시(M=4.73, SD=2.20), 당진시(M=4.78, SD=1.96) 등이 낮음

<표Ⅳ-27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4.73	2.20	2.34** 12, 6, 9, 2> 3, 4, 11, 14> 1, 8, 10, 15
2) 공주시	152	5.38	2.08	
3) 보령시	75	5.26	2.12	
4) 아산시	101	5.26	2.06	
5) 서산시	83	5.40	1.72	
6) 논산시	85	5.57	1.87	
7) 계룡시	92	5.17	2.35	
8) 당진시	97	4.78	1.96	
9) 금산군	126	5.46	1.96	
10) 부여군	160	5.04	2.25	
11) 서천군	155	5.28	1.99	
12) 청양군	146	5.78	1.91	
13) 홍성군	189	5.14	2.02	
14) 예산군	263	5.23	2.10	
15) 태안군	81	5.05	2.14	
전체	1975	5.23	2.07	

\*:  $p<.05$ , \*\*:  $p<.01$



[그림Ⅳ-19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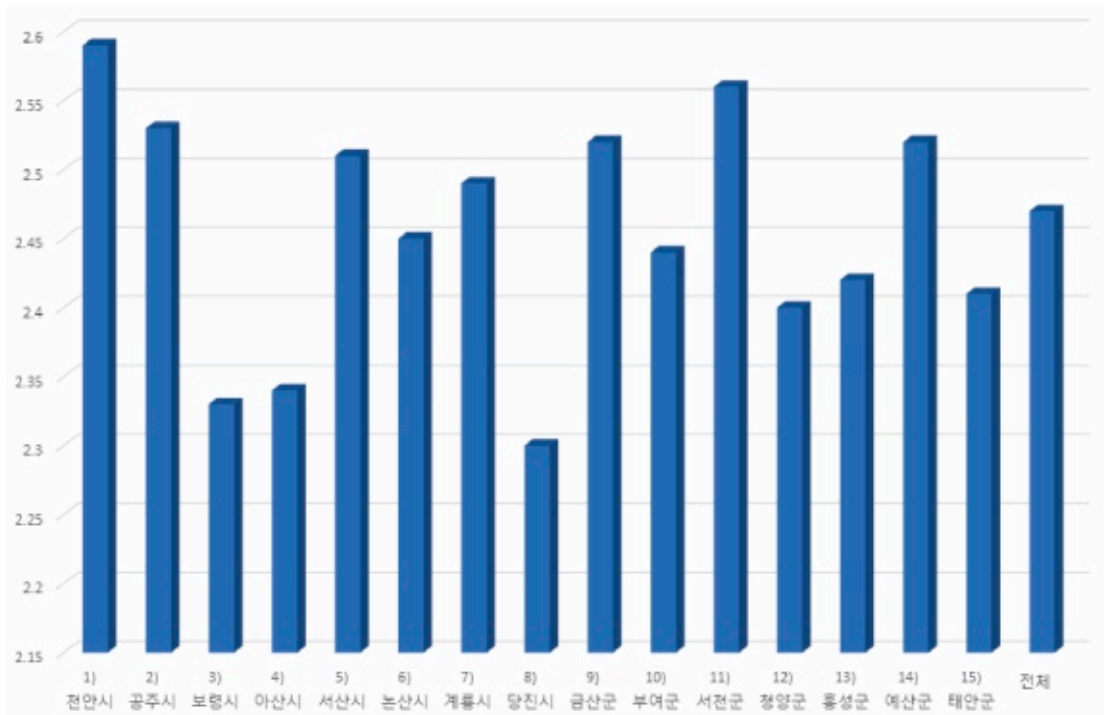
(3)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 정치관심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1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천안시(M=2.59, SD=.66)와 서천군(M=2.56, SD=.59) 등이 높음
  - 당진시(M=2.30, SD=.61), 보령시(M=2.33, SD=.78), 그리고 아산시(M=2.34, SD=.58) 등이 낮음

<표Ⅳ-28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2.59	0.66	2.19** 1, 11, 2, 9, 14 > 6, 10, 12>8, 3, 4
2) 공주시	152	2.53	0.63	
3) 보령시	75	2.33	0.78	
4) 아산시	101	2.34	0.58	
5) 서산시	83	2.51	0.65	
6) 논산시	85	2.45	0.64	
7) 계룡시	93	2.49	0.70	
8) 당진시	98	2.30	0.61	
9) 금산군	126	2.52	0.62	
10) 부여군	160	2.44	0.73	
11) 서천군	155	2.56	0.59	
12) 청양군	146	2.40	0.60	
13) 홍성군	188	2.42	0.66	
14) 예산군	263	2.52	0.67	
15) 태안군	80	2.41	0.64	
전체	1975	2.47	0.66	

\*:  $p<.05$ , \*\*:  $p<.01$



[그림Ⅳ-20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4) 선거지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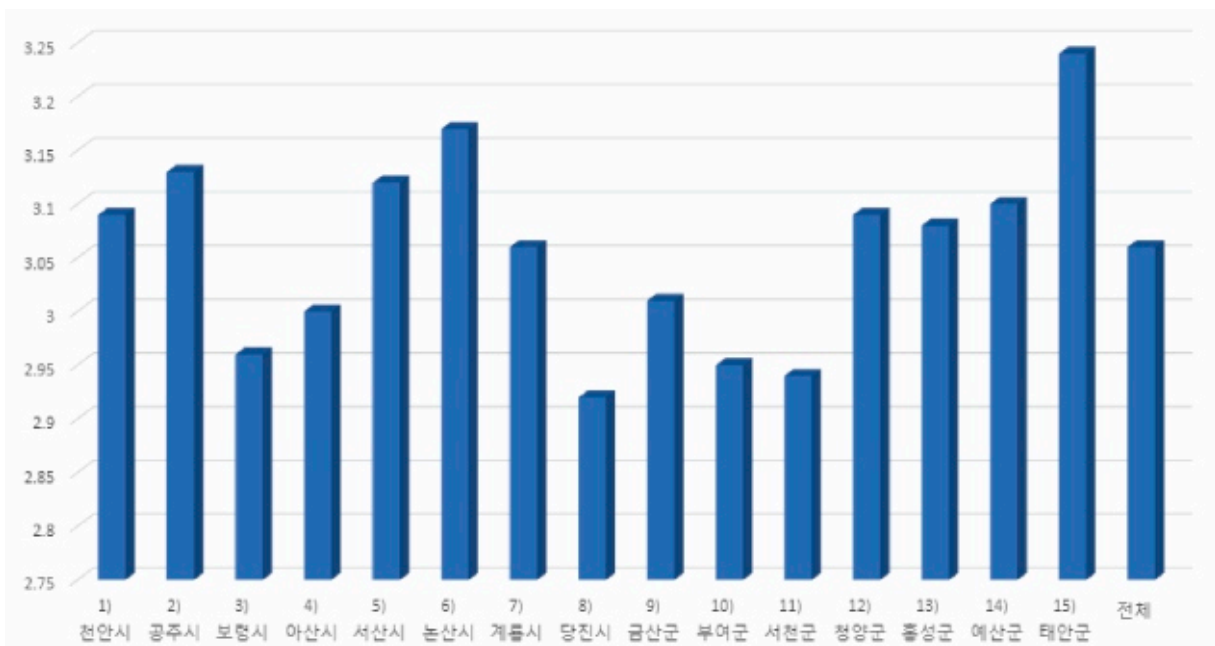
○ 선거지식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9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태안군(M=3.24, SD=.71)과 논산시(M=3.17, SD=.76) 등이 높음
- 당진시(M=2.92, SD=.56)와 서천군(M=2.94, SD=.68) 등이 낮음

<표Ⅳ-29 충청남도 지역별 선거지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3.09	0.63	1.95*      15, 6, 2 > 8, 11
2) 공주시	152	3.13	0.62	
3) 보령시	75	2.96	0.86	
4) 아산시	101	3.00	0.58	
5) 서산시	83	3.12	0.72	
6) 논산시	85	3.17	0.76	
7) 계룡시	92	3.06	0.70	
8) 당진시	98	2.92	0.56	
9) 금산군	126	3.01	0.71	
10) 부여군	160	2.95	0.74	
11) 서천군	155	2.94	0.68	
12) 청양군	146	3.09	0.68	
13) 홍성군	188	3.08	0.67	
14) 예산군	261	3.10	0.68	
15) 태안군	80	3.24	0.71	
전체	1972	3.06	0.69	

\*:  $p<.05$ , \*\*:  $p<.01$



[그림Ⅳ-2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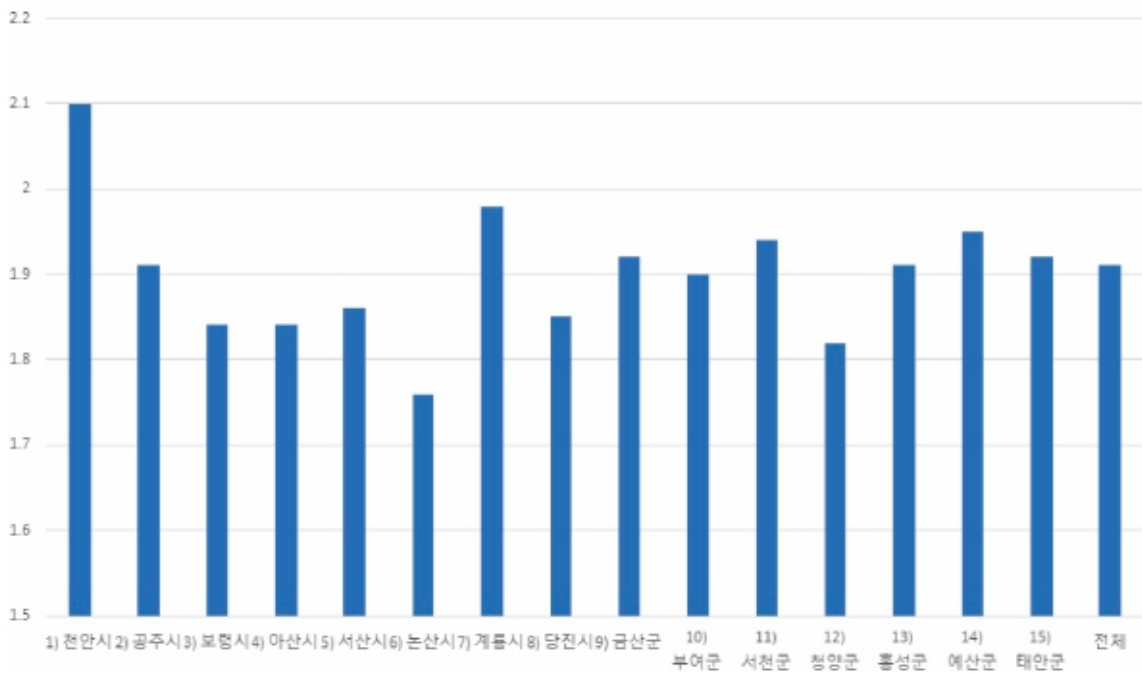
(5)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 정치활동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4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천안시(M=2.10, SD=.67)와 계룡시(M=1.98, SD=.68) 등이 높음
  - 논산시(M=1.76, SD=.52)와 청양군(M=1.82, SD=.59) 등이 낮음.

<표Ⅳ-30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2.10	0.67	2.40** 1, 7, 14, 11, 15 > 6, 12, 3, 4
2) 공주시	152	1.91	0.56	
3) 보령시	75	1.84	0.69	
4) 아산시	101	1.84	0.52	
5) 서산시	83	1.86	0.55	
6) 논산시	85	1.76	0.52	
7) 계룡시	93	1.98	0.68	
8) 당진시	98	1.85	0.53	
9) 금산군	126	1.92	0.57	
10) 부여군	160	1.90	0.59	
11) 서천군	155	1.94	0.63	
12) 청양군	146	1.82	0.59	
13) 홍성군	188	1.91	0.52	
14) 예산군	262	1.95	0.61	
15) 태안군	81	1.92	0.52	
전체	1975	1.91	0.59	

\*:  $p<.05$ , \*\*:  $p<.01$



[그림Ⅳ-2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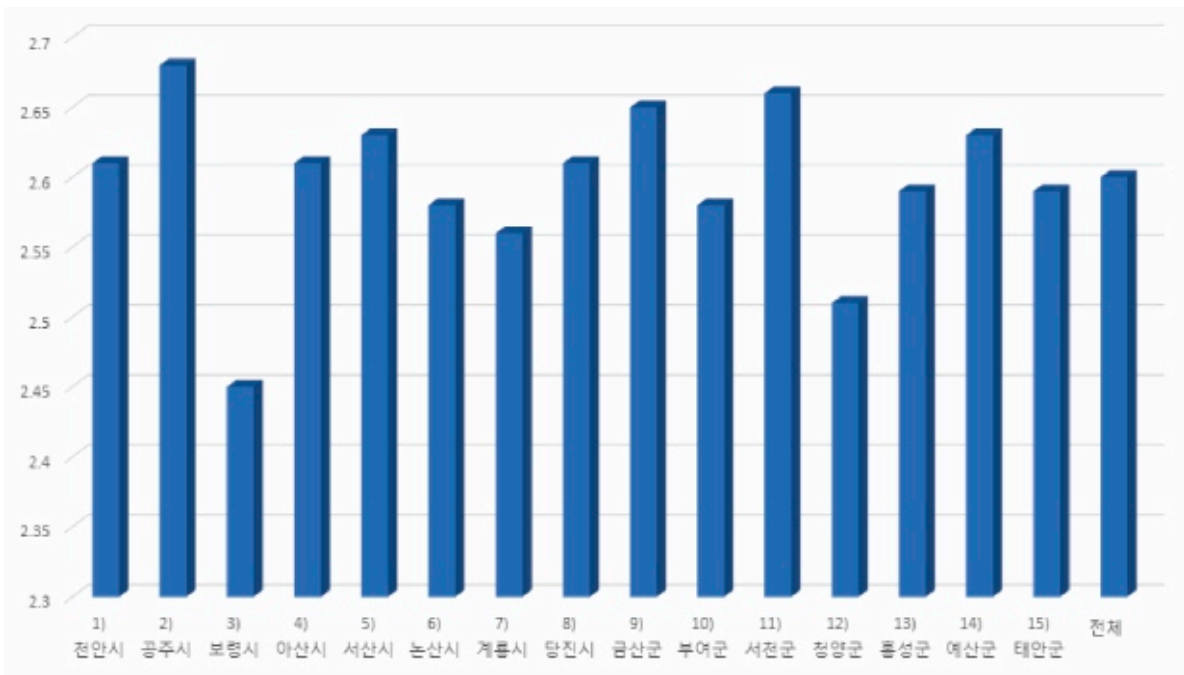
(6)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 정치정보 수용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4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Ⅳ-3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2.61	0.55	1.42      -
2) 공주시	152	2.68	0.54	
3) 보령시	75	2.45	0.62	
4) 아산시	101	2.61	0.42	
5) 서산시	83	2.63	0.46	
6) 논산시	85	2.58	0.57	
7) 계룡시	93	2.56	0.55	
8) 당진시	98	2.61	0.46	
9) 금산군	126	2.65	0.48	
10) 부여군	160	2.58	0.58	
11) 서천군	155	2.66	0.48	
12) 청양군	146	2.51	0.50	
13) 홍성군	188	2.59	0.49	
14) 예산군	264	2.63	0.55	
15) 태안군	81	2.59	0.50	
전체	1976	2.60	0.52	

\*:  $p<.05$ , \*\*:  $p<.01$



[그림Ⅳ-2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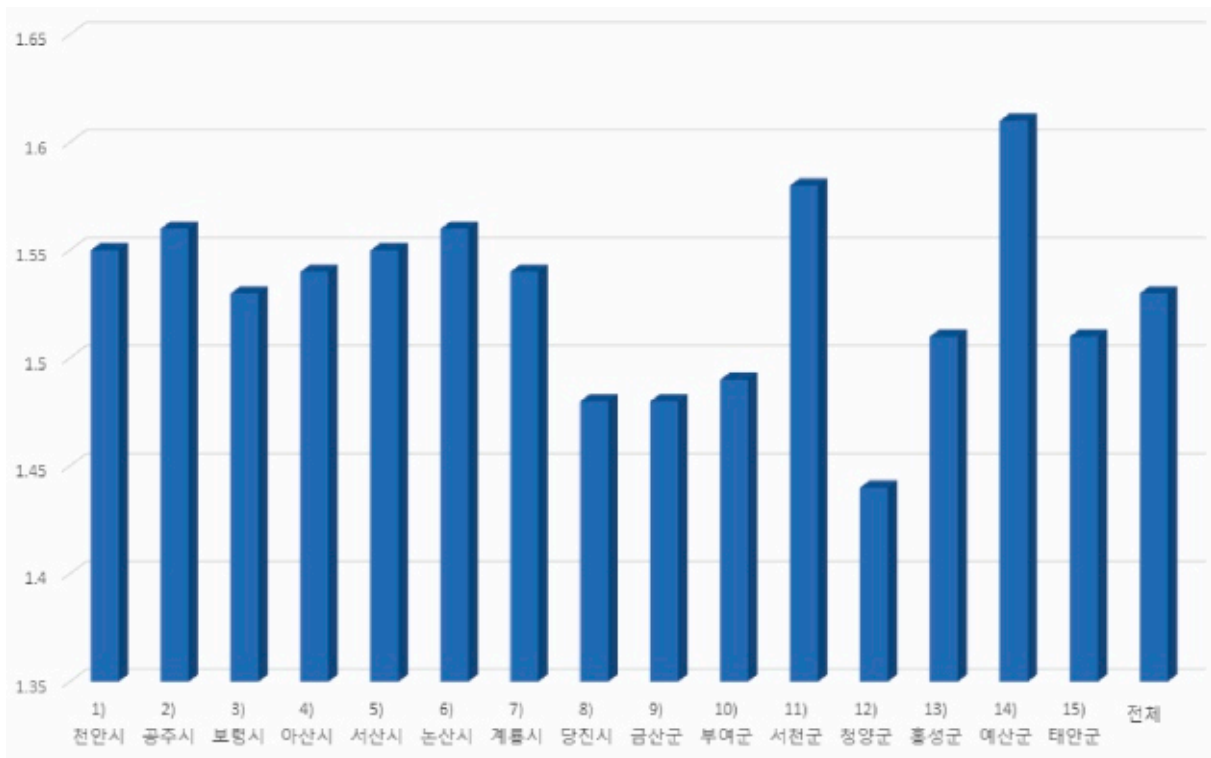
(7) 정치참여 활동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 정치참여 활동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3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Ⅳ-3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1.55	0.51	1.312
2) 공주시	148	1.56	0.53	
3) 보령시	74	1.53	0.74	
4) 아산시	100	1.54	0.52	
5) 서산시	82	1.55	0.46	
6) 논산시	84	1.56	0.53	
7) 계룡시	92	1.54	0.49	
8) 당진시	98	1.48	0.43	
9) 금산군	125	1.48	0.43	
10) 부여군	160	1.49	0.50	
11) 서천군	155	1.58	0.49	
12) 청양군	143	1.44	0.45	
13) 홍성군	189	1.51	0.43	
14) 예산군	263	1.61	0.53	
15) 태안군	81	1.51	0.46	
전체	1963	1.53	0.50	-

\*:  $p<.05$ , \*\*:  $p<.01$



[그림Ⅳ-2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8)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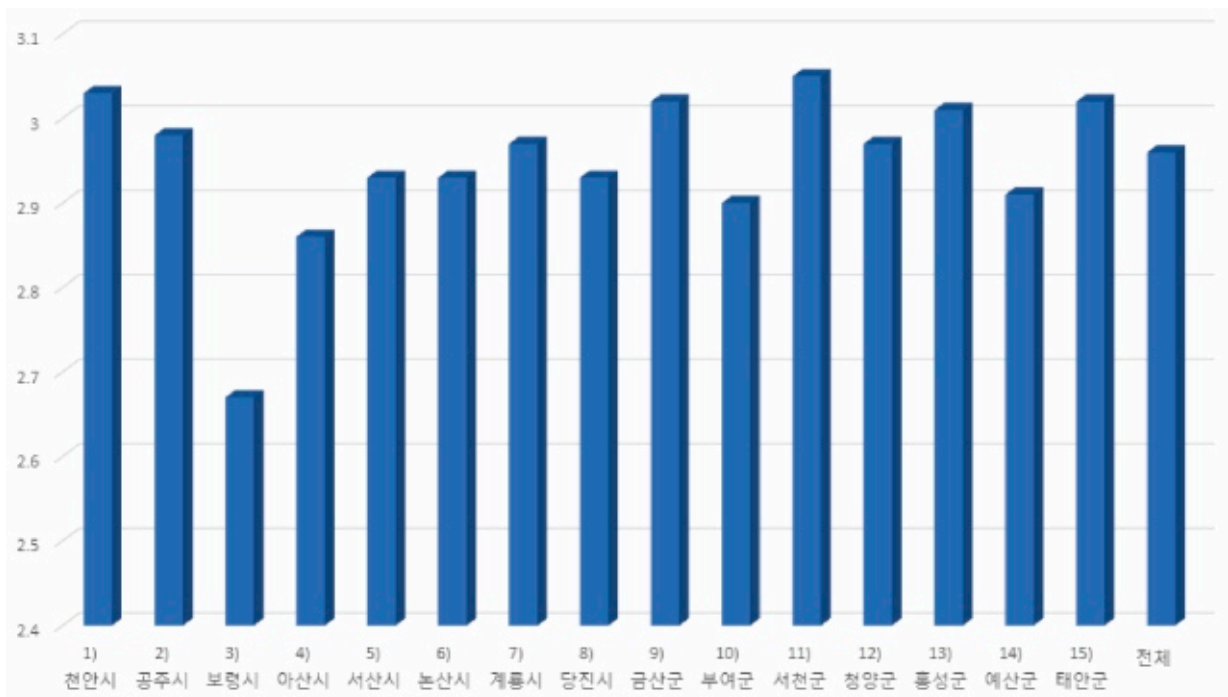
○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6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서천군(M=3.05, SD=.45)와 천안시(M=3.03, SD=.51) 등이 높음
- 보령시(M=2.67, SD=.80)와 아산시(M=2.86, SD=.59) 등이 낮음

<표Ⅳ-3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3.03	0.51	2.62** 11, 1, 9, 15, 13, 2 > 3, 4, 10
2) 공주시	148	2.98	0.60	
3) 보령시	73	2.67	0.80	
4) 아산시	100	2.86	0.59	
5) 서산시	82	2.93	0.44	
6) 논산시	84	2.93	0.58	
7) 계룡시	92	2.97	0.47	
8) 당진시	98	2.93	0.53	
9) 금산군	126	3.02	0.57	
10) 부여군	160	2.90	0.63	
11) 서천군	155	3.05	0.45	
12) 청양군	143	2.97	0.53	
13) 홍성군	189	3.01	0.54	
14) 예산군	263	2.91	0.63	
15) 태안군	81	3.02	0.50	
전체	1963	2.96	0.57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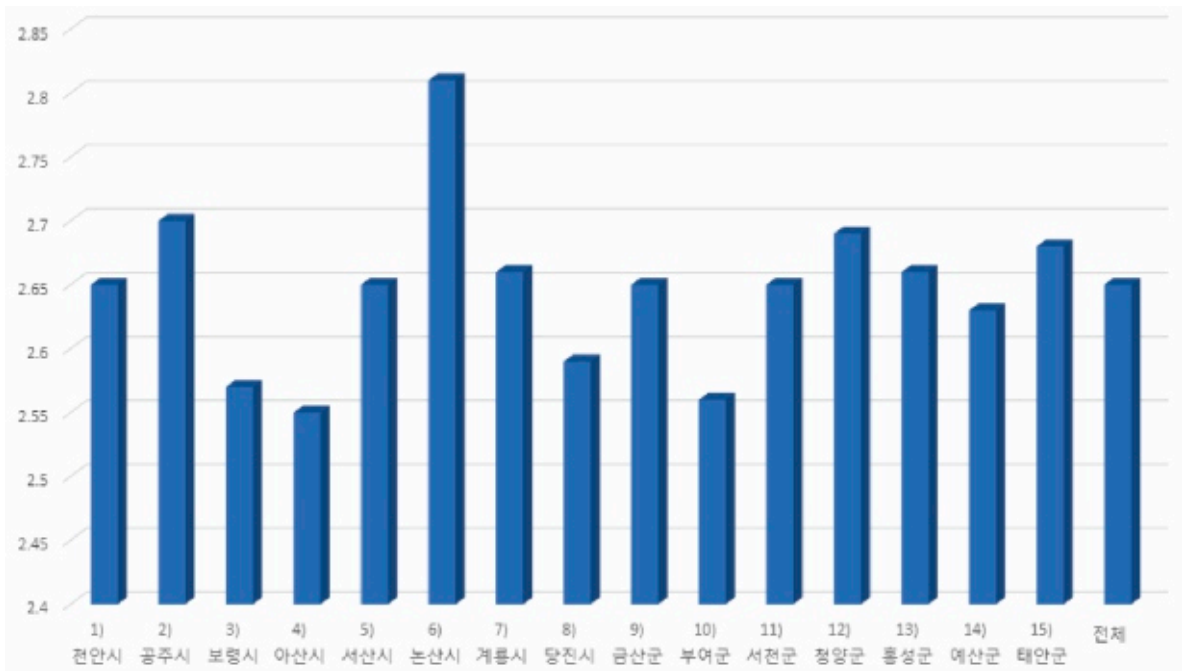
[그림Ⅳ-25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9)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 정치효능감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62,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Ⅳ-3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8	2.65	0.55	1.622
2) 공주시	148	2.70	0.52	
3) 보령시	74	2.57	0.55	
4) 아산시	100	2.55	0.40	
5) 서산시	82	2.65	0.50	
6) 논산시	84	2.81	0.55	
7) 계룡시	92	2.66	0.51	
8) 당진시	98	2.59	0.49	
9) 금산군	126	2.65	0.49	
10) 부여군	160	2.56	0.51	
11) 서천군	155	2.65	0.49	
12) 청양군	143	2.69	0.57	
13) 홍성군	189	2.66	0.47	
14) 예산군	263	2.63	0.51	
15) 태안군	81	2.68	0.50	
전체	1963	2.65	0.51	-



[그림Ⅳ-26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 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7.41$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4$ , adj.  $R^2=.038$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6) SNS(카톡, 페이스북, =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 부적영향관계(-)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표IV-35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2	1.056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2	-2.829**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1	-.0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29	1.083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7	.607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73	2.765**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4	.157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08	.263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3	1.543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2	.767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1	-1.739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45	4.925**

$R^2=.044$ , adjusted  $R^2=.038$ ,  $F=7.41$ \*\*

\*:  $p<.05$ , \*\*:  $p<.01$

(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4.04$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4$ , adj.  $R^2=.018$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부적영향관계(-):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표Ⅳ-36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58	1.869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77	-2.638**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3	.949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05	-.18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04	.124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4	-.15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8	-.28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3	.417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7	1.660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06	-.212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5	-.496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22	4.089**

$R^2=.024$ , adjusted  $R^2=.018$ ,  $F=4.004$ \*\*

\*:  $p<.05$ , \*\*:  $p<.01$

## (3)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69.617$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00$ , adj.  $R^2=.296$ 으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등
- 부적영향관계(-)  
=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표Ⅳ-37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95	3.644**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217	8.745**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14	3.916**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06	.260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8	1.568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80	-3.539**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38	6.048**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6	3.186**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2	3.428**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3	.527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5	3.387**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9	-1.541

 $R^2=.300$ , adjusted  $R^2=.296$ ,  $F=69.617$ \*\*\*:  $p<.05$ , \*\*:  $p<.01$

(4)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23.505$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27$ , adj.  $R^2=.121$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등
- 부적영향관계(-)
  - =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표IV-38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97	3.316**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04	3.745**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19	3.6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21	.790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1	-1.12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31	1.241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3	-.114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6	2.830**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0	1.138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6	-.578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76	2.710**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7	-3.078**

$R^2=.127$ , adjusted  $R^2=.121$ ,  $F=23.505$ \*\*

\*:  $p<.05$ , \*\*:  $p<.01$

(5)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98.639$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78$ , adj.  $R^2=.374$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표 IV-39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개인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5	3.443**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65	7.034**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39	5.049**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15	.68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24	1.05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4	-.171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41	6.54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63	2.473*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01	4.507**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5	2.346*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40	5.905**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5	1.048

$R^2=.378$ , adjusted  $R^2=.374$ ,  $F=98.639$ \*\*

\*:  $p<.05$ , \*\*:  $p<.01$

(6)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38.438$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93$ , adj.  $R^2=.188$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등

<표IV-40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3	1.168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8	3.284**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6	2.7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31	1.24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60	2.29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71	2.91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04	4.23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2	1.106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76	2.966**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6	2.098*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5	3.115**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1	-.769

$R^2=.193$ , adjusted  $R^2=.188$ ,  $F=38.438$ \*\*

\*:  $p<.05$ , \*\*:  $p<.01$



(7)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1.987$ ,  $p>.05$ 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2$ , adj.  $R^2=.006$ 으로 나타남

<표Ⅳ-41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6	-.515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7	1.260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10	.295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35	1.254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6	-.562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7	.266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8	-1.393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7	.519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4	1.559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1	1.041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2	1.059
12) 학교 선생님이거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07	-.246
$R^2=.012$ , adjusted $R^2=.006$ , $F=1.987$		

\*:  $p<.05$ , \*\*:  $p<.01$

(8)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회귀모형은  $F=8.443$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0$ , adj.  $R^2=.044$ 로 나타남

- 정적영향관계(+)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표Ⅳ-4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0	.331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22	4.192**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2	-.060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19	-.698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1	.391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2	-.078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5	.179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0	2.542**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9	1.393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8	1.624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6	1.547
12) 학교 선생님이거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7	-1.265
$R^2=.050$ , adjusted $R^2=.044$ , $F=8.443$ **		

\*:  $p<.05$ , \*\*:  $p<.01$

## 7. 청소년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 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 1)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국가기관 및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높고, 나머지 정치참여 인식 영역에 있어서는 진보 및 보수 성향의 청소년의 인식이 높음

<표Ⅳ-43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구분	N	M	SD	F	사후분석
국가기관신뢰	보수	180	2.55	0.65	3.69*	중도>진보
	중도	1153	2.58	0.53		
	진보	651	2.51	0.52		
	Total	1984	2.56	0.54		
국가권력기관 신뢰	보수	180	5.01	2.29	5.18**	중도>진보, 보수
	중도	1153	5.35	2.05		
	진보	650	5.06	2.06		
	Total	1983	5.23	2.08		
정치관심수준	보수	180	2.57	0.77	6.00**	진보, 보수> 중도
	중도	1153	2.43	0.62		
	진보	651	2.51	0.68		
	Total	1984	2.47	0.66		
선거지식수준	보수	180	3.01	0.73	7.10**	진보>보수, 중도
	중도	1151	3.01	0.67		
	진보	650	3.14	0.70		
	Total	1981	3.05	0.68		
정치활동_개인	보수	180	2.02	0.74	9.61**	진보, 보수>중도
	중도	1154	1.86	0.55		
	진보	650	1.97	0.61		
	Total	1984	1.91	0.59		
정치성향 수준	보수	180	6.19	2.21	33.4**	진보>보수>중도
	중도	1132	5.85	1.70		
	진보	639	6.59	1.90		
	전체	1951	6.12	1.85		
정치정보 접촉수준	보수	180	2.57	0.58	1.39	-
	중도	1153	2.59	0.51		
	진보	652	2.63	0.52		
	Total	1985	2.60	0.52		
정치참여 활동수준	보수	180	1.62	0.57	8.19**	진보, 보수>중도
	중도	1140	1.50	0.47		
	진보	650	1.58	0.52		
	Total	1970	1.54	0.50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보수	180	2.90	0.62	.38	-
	중도	1141	3.04	2.90		
	진보	650	2.98	0.60		
	Total	1971	3.00	2.24		
정치효능감	보수	179	2.66	0.54	4.26**	진보>중도
	중도	1140	2.62	0.50		
	진보	650	2.69	0.52		
	Total	1969	2.65	0.51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 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청소년 정치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인식이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정적영향관계가 나타남

〈표Ⅳ-44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 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모델값	$\beta$	t
국가기관신뢰	$R^2=.005$ , adjusted $R^2=.005$ , $F=10.477^{**}$	.073	3.237**
국가권력기관신뢰	$R^2=.020$ , adjusted $R^2=.020$ , $F=39.902^{**}$	.142	6.317**
정치관심수준	$R^2=.063$ , adjusted $R^2=.062$ , $F=130.895^{**}$	.251	11.441**
선거지식수준	$R^2=.057$ , adjusted $R^2=.057$ , $F=117.799^{**}$	.239	10.854**
정치활동_개인	$R^2=.048$ , adjusted $R^2=.047$ , $F=97.848^{**}$	.219	9.892**
정치정보접촉수준	$R^2=.037$ , adjusted $R^2=.037$ , $F=75.523^{**}$	.193	8.690**
정치참여 활동수준	$R^2=.031$ , adjusted $R^2=.031$ , $F=62.560^{**}$	.177	7.910**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R^2=.000$ , adjusted $R^2=.000$ , $F=.001$	-.001	-.033
정치효능감	$R^2=.032$ , adjusted $R^2=.031$ , $F=62.949^{**}$	.178	7.934**

\*\*:  $p < .01$ 

## 3)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Ⅳ-45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정치참여 활동	N	M	SD	t
	유무				
국가기관신뢰	무	1,308	2.55	0.54	.08
	유	603	2.55	0.55	
국가권력기관신뢰	무	1,308	5.23	2.06	1.23
	유	603	5.12	2.11	
정치관심수준	무	1,308	2.30	0.61	-16.97**
	유	602	2.81	0.61	
선거지식수준	무	1,307	2.95	0.68	-9.95**
	유	600	3.28	0.64	
정치활동_개인	무	1,310	1.72	0.46	-23.88**
	유	600	2.33	0.63	
정치정보수용수준	무	1,310	2.47	0.50	-16.78**
	유	602	2.88	0.46	
정치참여 활동수준	무	1,310	1.26	0.21	-58.74**
	유	603	2.12	0.43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무	1,309	2.86	0.58	-10.59**
	유	603	3.15	0.49	
정치효능감	무	1,309	2.60	0.51	-6.13**
	유	603	2.75	0.49	

\*\*:  $p < .01$

## 8.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분석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의 각 영역별(국가기관 신뢰,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선거지식, 정치활동, 정치정보 수용, 정치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 중요성, 그리고 정치효능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과 정치참여 인식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회귀분석을 실시함

### 1) 국가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가 높음
-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가 높음

### 2)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권력기관 신뢰 수준이 높음
-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음

### 3) 정치관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치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고, 정치정보 수용 및 참여수준이 높으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관심 수준이 높음

### 4) 선거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음
-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음

### 5)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음
- 정치관심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정치참여 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음

### 6)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음
-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음

### 7)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제수준과 부모 정치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음
-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음

### 8)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여자일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음
- 국가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선거지식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음

### 9)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정치효능감이 높음

#### IV. 질적연구 분석결과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치참여를 지원하여 선도적인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학교 및 수련시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하위범주, 23개의 주제가 도출

〈표 V-1 청소년 정치참여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제
청소년 정치참여의 어려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불편함
		청소년이 정치에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짐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참여 교육이 부족함
		참여에 대하여 지원할 준비가 부족함
정치참여 활동의 필요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성장함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표현하는 기회로 참여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성장함
	실천적이고 가치 있게 사회에 기여함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펼침
		실천적 활동을 통한 가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	기본적인 제도와 의사결정 구현에 이해가 필요함
		정치참여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함
	실천적 정치참여를 경험함	이론과 병행된 실천적 움직임이 필요함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치참여를 경험함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가치 있는 실현을 통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임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여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
		목소리 반영에 대한 환류와 신뢰감을 줌
	자율적인 권한과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참여의 내실화를 가져옴	자발적이고 주도적 정치 참여가 내실화를 가져옴
		청소년 활동의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됨	학교와 지역사회의 만남과 유연성 필요함
		참여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구성원의 의식 고취가 필요함

## V. 시사점 및 제언

### 1.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양적연구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에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것임. 또한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고, 개인적 정치활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음.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과 관심이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과 중요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치인식의 형성은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치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과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학교성적과 대학입학에 몰입되어 있음.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는 아닐 것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이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가로막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중요성의 대상, 그리고 관심의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과 관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부모님들과의 정치적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이 연구에서 부모님과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참여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 개인적 정치적 활동 성향이 높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함. 하나는 최초로 개인의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고 발전될 무렵에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독점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발전된 인간적 유대와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닌 정으로 얽혀있어 개인의 사회·정치적 행동발달에 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정치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정치관련 긍정마인드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전파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겠음. 이때 정치와 관련된 직접적 요소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간접적 요소 예를 민주시민 교육이나 동료들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치관련 요소를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정치관련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셋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과 관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또래 환경의 긍정적 정치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정보를 수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 선생님’, ‘선배’, 그리고 ‘친구(또래)’ 로 부터 제공되는 소식이었음.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학교의 환경은 단일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음. 학교의 환경은 청소년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인식 함양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활동을 통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과 관련하여 올바른 매체의 활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이 연구에서도 매체를 통한 정치적 정보의 수용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연구에서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등이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매체들의 정보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와 정적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음. 전통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대중매체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왔음. 하지만 최근 스마트미디어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특히 1인 미디어가 더욱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실적인 정보와 뉴스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청소년 시기에 정치인식에 대한 형성에 있어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습관보다는 여러 채널을 통해 비판적으로 정보를 듣고 이를 재해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통신매체의 기술적 향상과 확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대중 매체를 찾는 청소년들과 이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 때 대중매체의 힘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바른 대중 매체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과 정치참여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들은 우리사회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우리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정부패의 심한 이유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듯함.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그 깊이 또한 매우 깊은 것으로 해석됨.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들을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질적연구

### 1)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

- 청소년이 정치참여는 좁은 의미에서는 선거라고 인식되지만, 넓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매우 필요함.
-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책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청소년기본법 5조2)” 고 제시하는 등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정치참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등 자신의 생활과 사회를 변화하고자 노력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삶의 주제로 성장해 나아감.
- 정치참여 활동은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민교육차원의 활동으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며,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등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권리를 펼침으로써 자기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됨.

## 2)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 내용 및 요소

-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 활동 자료는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이 필요함.
- 우선,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이 구현되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또한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인식에서 정책입안자를 통해 정치가 실현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구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정치참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함양과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 우선 청소년이 삶속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하며,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아진 의견을 의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정치가 혹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자신의 의견이 실현되고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함.
-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차원에서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식을 함양하는 과정과 함께 정치참여 활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함.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 동아리·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청소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학생자치법정 운영 및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으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실천할 수 있음. 그리고, 학교 안과 밖에서의 참여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필요함.

### 3)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이고, ‘정치’ 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인식이 있으며,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 활동과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및 여건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 목소리를 정책에 가치 있게 반영함으로써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되어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정치참여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함.
-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심어준다면 정치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정치참여효능감도 높아질 것임.
-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 활동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에게 정책대안과 문제해결을 주도하게 한다면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운영 할 수 있음. 아울러 학교에서 정치참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해 쉽게 학교 밖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부족함.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학교의 행정적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배우고, 수업자료는 성인중심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도록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만들어 주고, 학생 중심의 실제적인 정치 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자료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해야 함.

-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된 교사, 청소년시설 관계자,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의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개선되어야 함. 아울러 가정에서의 부모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정치의식 함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국가, 지자체,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가 가능함.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에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고, 개인적 정치활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과 관심이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과 중요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치인식의 형성은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치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과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학교성적과 대학입학에 몰입되어 있다.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이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가로막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중요성의 대상, 그리고 관심의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청소년참여 확대, 청소년 권익증진, 청소년 참여방식 다변화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청소년 정치참여 사회적 관심을 포함한 변화된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함.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관계 공무원들의 청소년참여 활동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제도 운영과 각종 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 이와 같이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용되어야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시민들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활성화 됨.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관계 공무원들의 청소년참여 활동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제도 운영과 각종 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 이와 같이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용되어야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시민들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활성화 됨.

넷째,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활동은 문화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국한돼 있었고,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비교적 소홀하였다(이창호, 2020).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청소년참여 기반 조성이 되는 사업을 많이 운영해야 함. 예컨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토론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자기주도학습인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민주적 시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참여활동인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공연(문화)기획단, 청소년 주도 기획프로그램 지원 등의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및 활성화를 해야함.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인(온라인)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청소년모의선거, 청소년정치토론, 청소년정치강연, 청소년원탁회의 프로그램과 온라인 정책제안 시스템 등을 기획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와 참여경험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연합 활동이 필요함.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회, 캠페인, 청소년 모의선거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주최하는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함. 또한 많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조시켜야 함.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는 학교를 통한 홍보 방법이 매우 유효하고 중요함.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참여기구에 대한 직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해 주어야함.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나 SNS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이벤트나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야 함.

셋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에 힘써야함.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온라인 매체활용 능력이 급속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선발된 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에는 문제점이 있다.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과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 온라인 포털에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논의 할 수 채널이 있어야 하고,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야만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겠음. 아울러 청소년에게 경쟁력 있는 다양한 대외활동 및 참여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인 관계로 참여기구의 활동의 범위와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넷째, 국가, 지자체, 학교,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교육받고 활동한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및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를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3) 정치참여 효능감 향상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 활동을 확대해야 함. 이에 청소년시설에서의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 시키기이다.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변화를 직접 맛보며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하는 교육의 장이며,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임. 지금까지 각 17개 시도 지역에서는 지역 청소년시설협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해오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233개소 청소년참여위원회(시도17개소, 시군구216개소)와 331개소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모의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온·오프라인 모의선거’를 연합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를 크게 조직적으로 알릴 기회가 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으로 정치참여의 분위기 고조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하는 교육의 장이며,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될 것임.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음.

둘째, 청소년 정치동아리의 온라인 청원, 서명, 거리집회 참여 등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시키기이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수준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부모, 친구보다는 주로 인터넷에서 획득한다고 함. 그러나 정치참여 관심과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표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온라인청원,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뉴스를 즐겨보고 토론을 좋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동아리’를 구성하고, 모의의회, 모의재판, 사회 이슈 토론,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 거리집회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의사 결정능력, 지역사회 참여능력과 정책과정 참여능력을 키우며, 일반 동아리팀과 연합하여 행사하는 등 일반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반을 확대해야 함. 많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정치동아리 청소년들이 각종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주장이나 모습이 언론이나 정치권에 노출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청소년들의 주장이 공론화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바뀔 것임.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정치동아리’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해야 함. 또한 청소년시설에서는 시군구 의회나 지자체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정치교육과 참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만족을 느끼고, 청소년 정치인으로서 꿈을 키우고, 청소년 정치 관심이 고조에 정치참여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기구, 각종 정책제안 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 4)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의 노력이 요구된다.

18세로 하향된 선거연령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학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치참여 효능감이 충족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식의 변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유권자 연수,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실습·체험 및 강의를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학생회장선거의 경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투·개표까지 주도적으로 선거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향 제시 및 조언을 해 주는 방식임. 즉 기존의 실습이나 체험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둘째, 교사가 주축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방향의 전환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정치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교원선거전문교육연수’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원연수는 여름방학 기간 중 5일 동안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의 중요성, 정치관계법 교육, 선거와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30명 내외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연수로는 역부족임. 따라서 교원연수의 기간 및 인원을 확대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또한 연수외에도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셋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이 하향되자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련 책자를 배부했음. 하지만 선거권 행사와 달리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은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예를 들어 각 반을 다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책자만 보고 알 수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임. 18세는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후보를 반대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를 때 자유롭고 정당화 될 수 있음. 또한 대상을 18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8세가 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정치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청소년과 학교 특성에 맞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 등이 추진해 온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결정함. 모의선거가 공무원(교사)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4월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교육청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음. 이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시 이와 연계된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이지만 법을 벗어나 판단할 수는 없음. 따라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부합하고 교육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함.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Ⅵ. 토론문

### 충남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이순중 여성가족정책관

#### 1) 도입

-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음.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치러진 선거임에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외신들의 극찬이 이어짐.
-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후 최초로 진행된 선거라는 점임. 만 18세 청소년은 새내기 유권자가 되어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함.
- 만 18세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 수의 1.2%였고,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인 66.2%를 상회함.
-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참정권 확대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21대 총선의 투표율을 통해 보여줌.
-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지며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 하는 충청남도 또한 청소년의 높은 정치 참여 열망에 부응해야 하며, 도내 모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2) 제언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의 역할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함.
- 첫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마련임.
  - 현재 충남에서는 충남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충남 청소년정책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활동 관심도 증가로 권리를 인식하고 참여를 유인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의 참여 욕구 파악을 통한 수요별 지원 방안 수립 등 추진기반 마련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 둘째, 참여 관련 사업 성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음.
  - 현재 도에서는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참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청소년들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며 나 자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됨.
  -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하겠음.
  - 또한, 청소년 참여 사업의 홍보 강화 및 새로운 사업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욕구 충족을 위해 힘쓰겠음.

- 셋째, 정치 참여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임.
  - 도에서는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강사양성도 진행 중임.
  - 청소년들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또한, 일상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자긍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 청소년진흥원 및 도내 청소년 활동시설과 연계하여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등 정치 참여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음.

### 3) 마무리

- 어른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된 정치가 선거연령의 하향으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은 물론, 정치 활동이 일상에 스며들도록 우리 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1대 총선에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4,660만원’ 이라고 발표함.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후 선거에서도 꾸준히 권리를 행사해주길 바람.
-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미래 유권자로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람.
- 충청남도는 앞으로 의회,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에 힘쓰겠음.

## 청소년의 정치 첫걸음에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도의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생겼다.

갑작스런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이라고 여겨왔기에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사회적인 여건이나 통신 발달 등 정보 확산으로 18세도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며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시작 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갑자기 부여된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올바른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이나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

정치참여의 첫걸음이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올바른 선거에 본인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조언이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 분석에 대한 조사 중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에서 보면 학교선생님과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표로 정치인을 선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택권과 사회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의 조언에 의해서 혹은 선후배, 친구 등의 의리나 친분으로의 선택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바람직한 성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이고, 정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다.

학교에서 이제부터라도 정치참여 활동과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전략 및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사회 구석구석의 전반적인 실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사회적 관심을 포함한 변화된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위원회 설치나 청소년참여 예산제등의 설치를 먼저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나 도민참여 예산제가 시행 되고 있지만 성인임에도 걱정한 예산을 세워 실행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다. 또한 기존의 단체와의 조화에도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새로운 정책의 실행은 준비과정과 연습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분야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경험을 다양화 시키고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을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분석하는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말만하는 추측정치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험과 실력을 쌓은 후에 말을 해야 국민을 위한 더 살아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 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일단 사회 의 복지적인 측면과 경제적 외교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 우리사회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각종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정치의 분야별 동아리 운영 등을 적극 시행 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렇게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한 모의 실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 후 분명 많은 시행착오로 새로운 해결의 길도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사항을 협의고 보완하며 실행 해보는 반복적 교육도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하는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용되어야 하지만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협의 주체자들의 만족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의견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청소년의 의견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느낄 정책 수립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아직은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미성숙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접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청소년이 정치의 첫 걸음마를 제대로 시작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역할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광 선임 장학사

## 1) 연구결과 시사점

- 청소년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국가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감 상승
-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가정환경과 또래환경의 긍정적 정치문화 중요성
-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참여 증진과 관련 매체활용의 중요성
- 정의로운 사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 정책의 수립

## 2) 현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HOME > 뉴스 > 정치

## 충남학생인권조례 문제는 무엇?

이성엽 기자 leesy6904@dailycn.net | 승인 2020.06.04 16:06 | 댓글 0

교권침해 학생비행 조장 vs 인권진화적 학교 위한 첫 걸음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난2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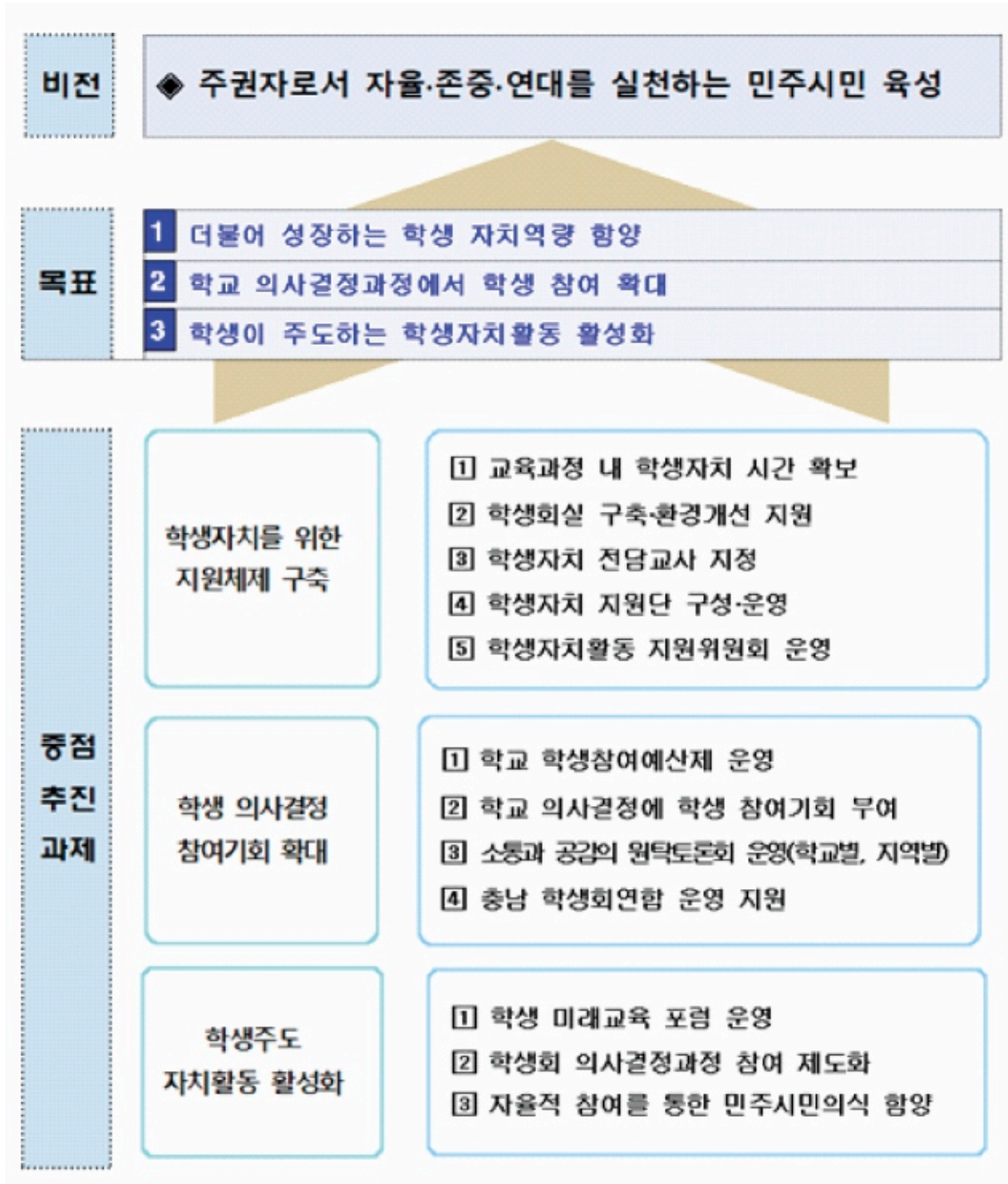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향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발의된 조례안"이라며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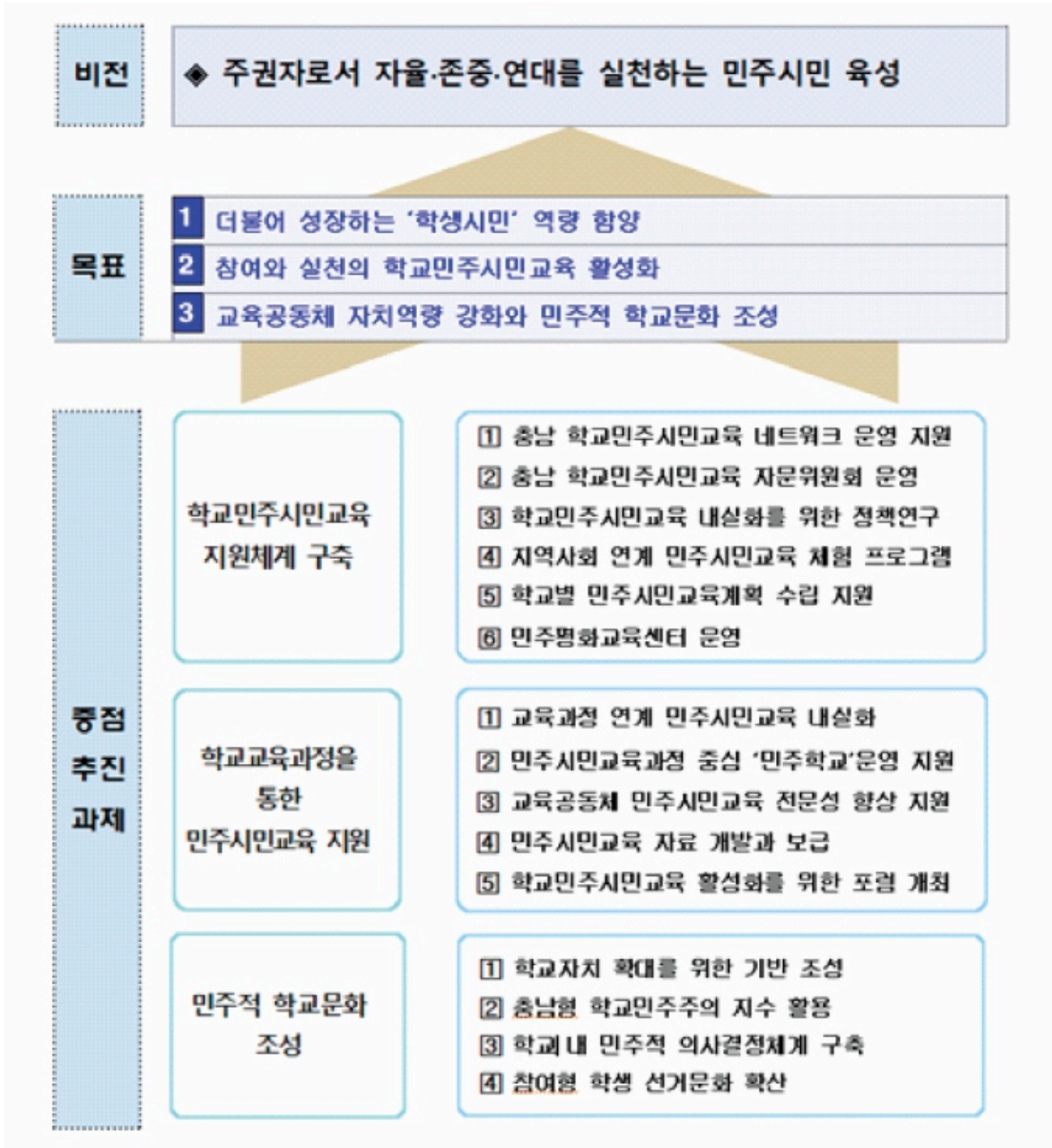
충남교총은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확고하게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교직윤리현장에도 존중하게 돼있다"면서 "조례안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자유에 비해 한계와 책임 부족 ▲만 18세 학생 선거권과 관련,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 ▲학교장 강제조항, 예산수반 조항 등 학교현장 부담 등 부작용을

3) 학생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운영



4)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운영



## 5) 학생 자치의 실질적 보장

충청 · 충남 · 내포

### 충남교육청, 학생참여예산제 실시

A 확보설 기자 | 2019년 03월 12일 18:45 | 0 댓글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해 학교와 교육청 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를 보장(사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학생자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공요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학생회에서 이를 1차로 심사한다. 사업이 타당할 경우,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학교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축제 비용, 자치신문 제작, 교복 물려주기 사업, 학생회 공약이행,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

## 6)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지방 > 지방일반

### 충남교육청, 온라인학교에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이승민 기자

등록 2020-04-01 14:52:28



충청-뉴스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충청-뉴스시스 유보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온라인학교를 활용, 학생유권자 선거교육에 나선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중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은 전체 학생 중 6100여명이 오는 4월 15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며, 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운영 방법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전용채널에 선거관리위원회 제작한 18세 유권자 선거강의와 영상교육 자료를 탑재하여 학생 스스로 내러티브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지원과 선거 관련 사전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해 학생유권자 지원 선거 상황반을 설치하고 선거기간 동안 운영한다. 상황반은 교육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유권자 관리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 많이 본 뉴스
- | 순위 | 제목                       | 조회수  |
|----|--------------------------|------|
| 1  | 충남인물탐방 '포스트' 시즌 첫...     | 1500 |
| 2  | 발 거칠 거 둔장날 마실 -15도...    | 1200 |
| 3  | '말고, 포스트'19 부정적 여론 방지... | 1100 |
| 4  | 포스트인물 '연출 코로나' 배역...     | 1000 |
| 5  | 충남인물탐방 '포스트' 세스차...      | 900  |
| 6  | 대형한도 별가에 이달리아, 영국...     | 800  |
| 7  | 12억 상급 별문 고건영 '미국'...    | 700  |



기자수첩 >

한기요즘재계 거론, 활력적 활동 전환 등 대외 활동과 활동한 한기요즘 재계 개편이 예상된다.

김동원 기자 보도한다

한일 국내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당신이 좋아하는 한문 정보

'발 걸치다'가 채우 순서는 법 성격, 방해할수있는남자 혼돈순서까지 방해할수있는남자 혼돈순서까지

7) 온라인 학생자치 플랫폼 ‘들락날락’



8)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료실
• ***중요*** 학교별 설문조사ID 연내	2020-12-10
• [학교별 조사 ID, 학교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Q&A]	2020-12-10
• 설문조사 참여 시, 페이지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멈추어...	2019-11-21
• [학교관리자] 학교별 관리자 로그인 시 학교별 진행상황이 보...	2020-12-10

**지수 조사 권역 문의**

1. 지수 조사 세팅팀, 화면 출력 문의  
한국과학기술인정원(020-538-1000, tj\_sung@kps.ac.kr)
2. 지수 조사 내용 및 조사 결과 활용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041-640-7413)  
(041-640-7425@chunnam.go.kr)
3. 학교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의(학교 담당자 지수별 지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041-640-7413)  
(041-640-7425@chunnam.go.kr)
- 한국과학기술인정원(020-538-1000, tj\_sung@kps.ac.kr)

충청남도교육청 (02020) 충남 중립권 행복권 실행도 22 | Harkook Research | 서울본사: 04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 지재팀: tj\_sung@hrc.co.kr

9) 기타과제

- 학교자치 제도화 - 『충남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조례』 제정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과정 포함
-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확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안정적 정착 등

## 청소년 정치 참여활성화 방안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김재만 계장

### 1) 들어가며...

올해 초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이후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에게 선거참여 및 선거법 안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18세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은 물론, 선거법 상의 제한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를 안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8세 새내기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방식 개발 및 ‘새내기유권자 교육교재’도 제작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과 안내는 온라인 형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제작된 교재는 학교와 교육청에 배부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년, 71.9%) 이후 28년만에 최대치인 66.2%의 투표율을 달성했다.

18세 유권자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던 이번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은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반해 정치활동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활동 참여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물 읽기’ 등으로 단편적인 활동에 그쳤다. 이는 각종 선거를 관리하고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큰 숙제를 남긴다.

### 2) 제언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네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네가지 제안은 이번 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 및 바람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제언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첫째, 정치참여 효능감이 충족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식의 변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유권자 연수,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체험 및 강의를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선거의 경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투·개표까지 주도적으로 선거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향 제시 및 조언을 해 주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실습이나 체험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주축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방향의 전환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정치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교원선거전문교육연수’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연수는 여름방학 기간 중 5일 동안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의 중요성, 정치관계법 교육, 선거와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30명 내외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연수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원연수의 기간 및 인원을 확대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수 외에도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사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이 하향되자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련 책자를 배부했다. 하지만 선거권 행사와 달리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은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각 반을 다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이다. 18세는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후보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를 때 자유롭고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18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8세가 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정치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작·배부된 안내자료는 물론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과 학교 특성에 맞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 등이 추진해 온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의선거가 공무원(교사)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4월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교육청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시 이와 연계된 법률상의 공백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이지만 법을 벗어나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부합하고 교육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사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3) 마치며...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비전<sup>1)</sup>이다. 좋은 정치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별안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차근차근 좋은 정치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종 기관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오늘이 이 자리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의미 있는 자리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당장에 급한 마음이 들지만,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학교 특정 기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은 분명하다. 제언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학교, 국회 등 각종 기관과 청소년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좋은 정치’도 실현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1) 선거관리위원회 비전 :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에 대한 토론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도희 사무총장

### 1. 들어가면서

- 충청남도 차원에서 ‘청소년정치참여’ 라는 담론을 공론화 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어 보임. 국내 최초임(공공청소년기관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연구주제임)
- 나아가, 코로나 19 시기에, 참으로 어렵게, 충청남도 청소년들(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치참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라 보여짐
- ‘청소년정치참여’ 라는 주제가 일시에 조사-분석-제안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으로, 향후 긴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노력해야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임

### 2. 연구물 검토

- 기본개념에 대한 명료화(사전 정의 보완 필요)
  - 청소년정치참여, 청소년소통, 청소년참여, 청소년자치 등을 통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청소년의 출발점에 대한 정리 필요
  -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 학생? \* 현재, 청소년과 학생을 혼용하여 사용 중
  - 충남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 \* 충남도정(도의회), 시군구(기초자치의회) 등 나아가 국가(국회, 정부)  
(학교는 정치참여의 장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 선거연령 하향이 가져오는 변화 또는 변화가능성에 대한 정리 필요
  - 청소년선거연령 하향(18세)을 성공하기 까지의,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들의 정치적 노력과 과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18세 선거권 획득을 통해, 청소년정치 참여의 장 확대와 맞물려 청소년들이 해야할 사항(정보)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
  - 나아가 선거연령 하향(선거권 확대: 16세 선거권 확대)의 발전적 전진방향 포함
- 양적연구방법
  - 기본 측정도구(척도)를 5점으로 통일하면 좋을 듯
  - 고등학생으로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 보완필요
  - 현 질문문항은, ‘정치참여’ 라기 보다는 정치성향 및 정치진단, 정치만족도에 가깝게 느껴짐. 이에, 청소년정치참여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할 듯
    - \* ‘정치관심과 참여: 선거’ 에 대한 질문은 금년 고3중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여서 정리·검토 필요

- 정치효능감의 질문문항과 분석에 대하여서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접근해야함.(현 질문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여짐). 현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만일 대학생(일반인)과 고등학생을 그룹화 하여 비교하고자 할 시 일정부분 의미가 있어 보이나, 현재의 조사는 무엇으로 문제화시켜 도출하고 이끌어 내려하는지 방향감을 잃게 함

○ 질적연구방법(FGI)

- 질적연구의 범주와 하위범주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주제의 설정은 다소 아쉬움. 세부주제가 청소년정치참여와의 관계성 보다 현실 사업과 기관에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보여짐
- FGI 대상자 의견 중, ‘청소년정치참여 관련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자’와 ‘당사자인 청소년 정치참여 리더’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어떠할까 보여짐
- \*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논의 방향을 산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수련시설(지역사회)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정치 참여 방안

○ 수련시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및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수련관의 경우 시군구 청소년을 대표
-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읍면동의 청소년을 대표

○ 연령별(초중고: 발달단계고려)에 맞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역청소년정치 참여 방법 마련

- 초기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중기청소년(중고)의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후기청소년(청년, 대학생)의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지역정치인, 정치집단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청소년비례대표제 도입(일정부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마련)
- \* 당당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정치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지역민주주의 실현 구현

4. 마무리 하면서(중장기적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제언)

○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의 충청남도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매끄럽게 될 것 같음

-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정치참여를 아주 기초부터 생각하면서, 향후 발전적 제안으로 도출하였으면 함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미래를 담보 할 수 있는 리더가, 충남에서 청소년정치활동을 통해서 탄생될 수 있음 (왜 이 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

- 현재 진행중인, 청소년정치참여 관련 국회(지방의회) 등 차원의 시도 및 경과 제시
  - 장경태 국회의원(청소년사다리 4법 발의: 2020.8)

\* 취지: 지난 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첫 걸음을 떴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만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기여해야 함.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관련 있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고자 함

\* 개정안

법안명	내용
「정당법」	- 당원가입 연령 하향 : 정당의 당원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 도모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연령 하향 :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의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여 주민의 범위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
「지방교육자치법」	-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하향 :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
「초·중등교육법」	- 학생의 민주시민인식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추가

-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한 제시 필요할 듯
  - 국외 청소년 정치참여의 우수 사례
    - \* 독일(녹색당) ‘안나 튀어만’ 국회의원 등(사례가 많이 있음)
  - 국내 청소년정치참여 활동의 사례와 그 성과 등 제시
- 청소년정치의 핵(중심)은 기존 청소년 사업이해 및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아닌,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운동성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작게나마 다루어져야 함
- 대한민국의 운영시스템(민주공화국), 대통령중심제, 법률주의 등의 이해속에서 청소년정치참여의 의의와 역할이 어떤것인지가 우선적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함
-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청소년정치참여(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방향제시
  -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시기에(초기, 중기, 후기)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정치활동의 장(프로그램)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윤주희 위원장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는 현저히 떨어질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첫째,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 중 대다수 사람은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회에 나가기 전 배움을 실천하는 학교에서 현 사회에 대해 배우고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 일까요? 추가로 학교에서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과목 교사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교육한다고 한들 교사 자신의 주관에 담기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은 정치적인 사건을 담아내는 경우 그 과정 보단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를 배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배움 없이 세상 속에 뛰어들기보단 역사와 현재의 정치 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치 활동의 방향성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활동이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토론을 뉴스나 기사를 접하면 서로를 헐뜯고 실질적인 내용 없이 싸우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비판을 하는 내용의 기사가 현재 청소년이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자들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판하고 때론 수용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 정치 속에서 청소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띠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현 사회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활동들이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청소년 자치기구 소속해 있어서 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에 어른들이 도움을 주고 수용하여 준다면 보다 더 청소년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느낀 것이 있다면 어른들이 청소년의 의견에 집중하면서 점점 청소년을 보호가 아닌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시민의 일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됨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스며들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청소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연구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최현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책임연구위원
박준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활동정책팀	팀장	내부연구위원
성은모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외부연구위원
강경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연구위원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선임 장학사	외부연구위원
김재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장	외부연구위원
배영호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외부연구위원

2020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TEL 041-562-9003 FAX 041-552-1984  
 홈페이지 www.cnyouth.or.kr 페이스북 /cnyouth08  
 발 행 인 박영의  
 발간번호 CYDA-2020A-7  
 인 쇄 처 우림기획 전화 (041-557-8944)